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책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문화체육관광부]

I. 예산안 개요 / 1

1. 현 황	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

II. 주요 현안 분석 / 13

1. 생활SOC 사업 분석	13
1-1.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5
1-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20
1-3.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필요	23
2.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관련 사업 분석	27
2-1.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준비 철저 필요	28
2-2.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 필요	31
2-3. 박물관·미술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시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34
3. 한류 콘텐츠 확산 및 한류축제 활성화 관련 사업 분석	37
3-1. K-컬처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39
3-2.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전략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43
3-3. K-Pop Experiences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46



III. 개별 사업 분석 / 49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49
2. 창업·기업가 양성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52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등 필요	57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61
5.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64
6. 효과적인 매체별 광고 집행계획 수립·추진 필요	69
7.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구축 시 효과적인 콘텐츠 공급방안 마련 필요	72
8.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준비 필요	75
9.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80
10. 디비전리그의 타종목 확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82
11.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적정예산 편성 필요	85
12.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사업의 근거법률안 심의경과 고려 필요	89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91



[문화재청]

I. 예산안 개요 / 95

1. 현 황	9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9

II. 개별 사업 분석 / 101

1. 광화문월대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101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105
3. 문화재돌봄지원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108
4.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	111
5.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의 실행행률을 감안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114
6.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관련 입장료 수입 증대 방안 강구 필요	116
7.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수요조사 결과 반영 필요	120
8.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준비 철저 필요	123



문화체육관광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및 6개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조 3,185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4,012억원(13.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8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8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61억원, 영화발전기금 59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2억원, 언론진흥기금 254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3,147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7,720억원이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31,002	79,705	79,705	81,143	1,438	1.8
- 일반회계	102,847	56,687	56,687	58,669	1,982	3.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432	22,328	22,328	21,774	△554	△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5,723	690	690	700	10	1.4
기 금	2,612,398	2,837,538	2,837,538	3,237,312	399,774	14.1
- 문화예술진흥기금	54,167	63,631	63,631	66,079	2,448	3.8
- 영화발전기금	63,300	55,992	55,992	58,996	3,004	5.4
- 지역신문발전기금	496	160	160	160	0	0.0
- 언론진흥기금	20,804	25,378	25,378	25,378	0	0.0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 관광진흥개발기금	1,051,211	1,021,612	1,021,612	1,314,652	293,040	28.7
- 국민체육진흥기금	1,422,421	1,670,765	1,670,765	1,772,047	101,282	6.1
합 계	2,743,401	2,917,243	2,917,243	3,318,455	401,212	13.8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은 6조 4,75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986억원(8.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5,50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240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86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837억원, 영화발전기금 995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93억원, 언론진흥기금 23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2,07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4,696억원이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761,557	3,290,243	3,291,743	3,382,880	91,137	2.8
- 일반회계	1,950,909	2,283,747	2,285,247	2,550,222	264,975	11.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10,648	926,326	926,326	724,019	△202,307	△21.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66,749	80,170	80,170	108,639	28,469	35.5
기 금	2,381,373	2,633,097	2,685,487	3,092,938	407,451	15.5
- 문화예술진흥기금	239,991	271,731	271,731	283,695	11,964	4.4
- 영화발전기금	60,597	76,835	76,835	99,535	22,700	29.5
- 지역신문발전기금	7,936	7,743	7,743	9,252	1,509	19.5
- 언론진흥기금	21,865	22,689	22,689	22,991	302	1.3
- 관광진흥개발기금	967,515	997,322	1,037,412	1,207,897	170,485	17.1
- 국민체육진흥기금	1,083,470	1,256,777	1,269,077	1,469,568	200,491	16.0
합 계	5,142,931	5,923,340	5,977,230	6,475,818	498,588	8.4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89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99억원(18.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8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90억원이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2,847	56,687	56,687	58,669	1,982	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432	22,328	22,328	21,774	△554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84,238	80,476	80,476	108,980	28,504	35.4
합 계	209,517	159,491	159,491	189,423	29,932	18.8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조 5,45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41억원(2.7%)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7,12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240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90억원이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109,889	2,443,013	2,444,513	2,712,444	267,931	1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10,995	926,326	926,326	724,019	△202,307	△2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67,096	80,476	80,476	108,980	28,504	35.4
합 계	2,987,981	3,449,815	3,451,315	3,545,443	94,128	2.7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9,704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6,150억원(14.1%)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5,334억원, 영화발전기금 2,695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04억원, 언론진흥기금 313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5,18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조 6,073억원이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315,205	468,533	468,533	533,410	64,877	13.8
영화발전기금	313,315	264,950	264,950	269,514	4,564	1.7
지역신문발전기금	9,807	8,649	8,649	10,448	1,799	20.8
언론진흥기금	25,089	26,978	26,978	31,293	4,315	16.0
관광진흥개발기금	1,094,276	1,237,011	1,237,011	1,518,520	281,509	22.8
국민체육진흥기금	1,979,647	2,349,294	2,349,294	2,607,258	257,964	11.0
합 계	3,737,340	4,355,415	4,355,415	4,970,443	615,028	14.1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정구조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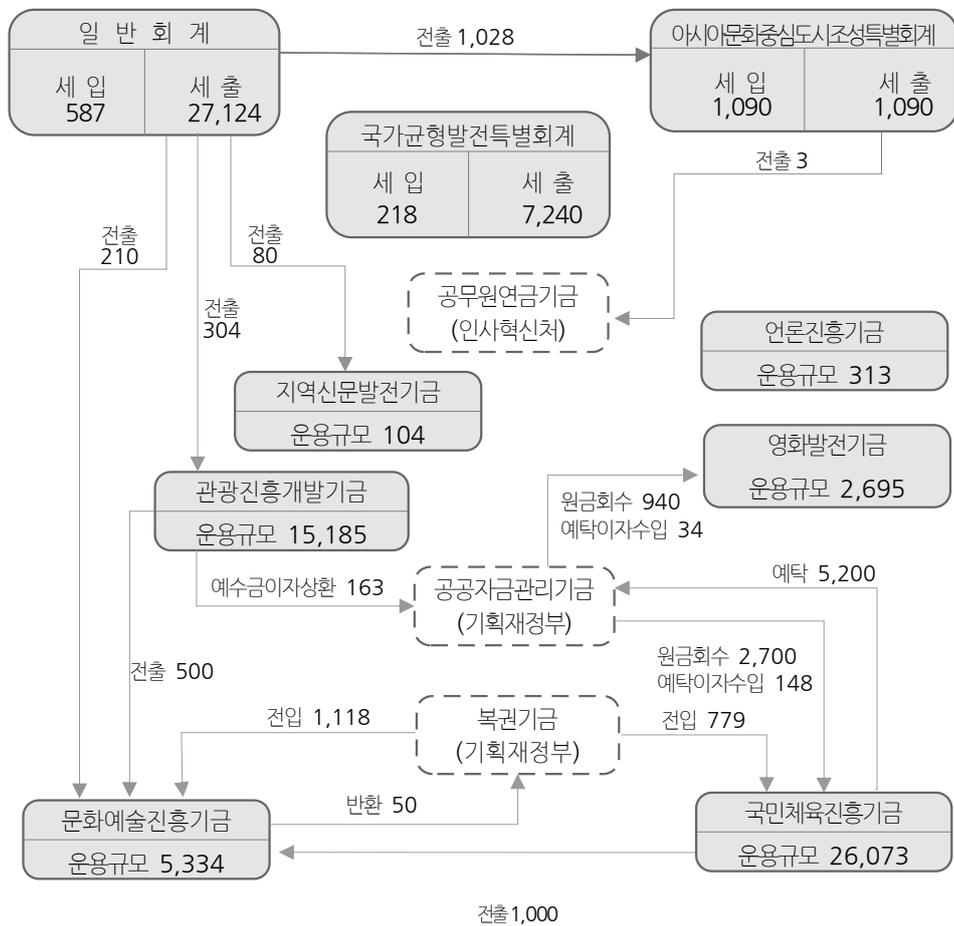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028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80억원,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10억원,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304억원이 전출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억원이 전출된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0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5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1,118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50억원을 반환할 예정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779억원을 전입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2,700억원, 예탁이자 수입으로 148억원을 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200억원을 예탁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940억원을 원금회수하고, 34억을 예탁이자 수입으로 받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 이자로 163억원을 상환한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총지출 기준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25억원(9.3%)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②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스포츠기업 및 장소형 관광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③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확대(53명, 212관→300명, 1,200관) 및 지역 박물관·미술관 내 실감 체험존 조성, 문화도시 조성, 국민체육센터(신규 173개소) 및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신규 25개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④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5,500명→12,000명)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1,170명→2,370명) 지원대상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만원 인상(8만원→9만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추가 조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⑤ 또한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을 위해 세종학당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태권도 세계화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내실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공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여론수렴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폐·휴관 건수가 증가하고, 운영 평가결과 미흡한 평가를 받는 작은도서관 비율이 높으므로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평가한 중장기적인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박물관·미술관 협력강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40개 지방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사업은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의 이용실태,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참여관을 선정하고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 효과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K-컬처 페스티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K-Pop 공연은 사업 특성상 단기 간의 수익이나 효과에 머물 우려가 있으므로, 연관 산업의 성장과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에는 국가나 지자체, 민간에서 주최하는 K-Pop 공연이 많으므로 개최 시기와 지역을 조율하는 등 외래관광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 모태펀드 출자액을 대폭 확대하고 기획·개발 단계의 초기 제작 및 장르에 투자 비중을 늘렸을 경우 펀드결성 지연으로 적기 투자가 어려울 수 있고, 수익률 악화로 인해 동 펀드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모태펀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사업은 5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아직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등 사업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선정된 지자체와 실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 379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은 첨단 기술을 지역 문화 공간에 접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이고,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문양의 산업활용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2020년 6월 준공되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에 문화거점을 조성,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은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신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2020 예산안
일반회계(9개)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5,820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4,078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3,350
	공연예술 창작 거점 조성	2,000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센터 건립	517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4,000
	양성평등 문화 확산	400
	5G 기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정보화)	1,904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정보화)	1,97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개)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1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705
국민체육진흥기금(2개)	스포츠친화기업 선정지원	225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905
합 계		37,8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①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은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 운영 지원 확대 및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사비 증액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5,500명→12,000명) 등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③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5세대 통신(5G) 시대 대비 실감형 콘텐츠 산업 집중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인프라 조성 등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사업은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액 확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건립 개소 수 증가로 예산이 증액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3개)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	1,500	1,500	2,107	607	40.5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201	201	598	397	197.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3,184	13,184	32,182	18,998	144.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49,831	49,831	72,591	22,760	45.7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16,881	16,881	30,529	13,648	80.8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994	994	2,593	1,599	160.9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39,826	39,826	68,275	28,449	71.4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4,403	4,403	7,839	3,436	78.0
	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7,254	7,254	11,953	4,699	64.8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63,000	63,000	123,000	60,000	95.2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26,125	26,125	97,455	71,330	273.0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154	2,154	3,354	1,200	55.7
	국제방송 지원	2,860	2,860	12,102	9,242	323.1
	광고산업 활성화	1,060	1,060	2,686	1,626	153.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758	7,758	10,527	2,769	35.7
	국제문화정책지원	3,493	3,493	6,493	3,000	85.9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5,024	5,024	38,425	33,401	664.8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31,319	31,319	51,827	20,508	65.5
	예술의 산업화 추진	5,942	5,942	8,701	2,759	46.4
	문화예술교육ODA	200	200	400	200	100.0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5,546	5,546	12,188	6,642	119.8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7,649	7,649	32,086	24,437	319.5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156	2,156	2,830	674	31.3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	2,000	2,000	9,990	7,990	399.5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4,395	4,395	7,063	2,668	60.7
	미디어홍보	6,629	6,629	9,217	2,588	39.0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6,945	6,945	9,245	2,300	33.1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227	227	690	463	204.0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9,257	9,257	18,920	9,663	104.4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641	641	984	343	53.5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564	564	2,303	1,739	308.3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00	300	416	116	38.7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3,154	3,154	4,662	1,508	47.8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특별회계 (3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636	636	1,384	748	117.6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1,565	1,565	17,830	16,265	1039.3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0,964	20,964	35,667	14,703	70.1
국가균형 발전특별	문화시설확충및운영(지역자율)	236,690	236,690	280,092	43,402	18.3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회계 (8개)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8,054	8,054	14,843	6,789	84.3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지역지원)	84,611	84,611	103,112	18,501	21.9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3,120	3,120	9,938	6,818	218.5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20	20	30	10	50.0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840	840	9,691	8,851	1053.7
	문화시설확충및운영(세종)	1,880	1,880	5,437	3,557	189.2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특별자치시계정)	1,350	1,350	3,550	2,200	163.0
	문화예술진흥기금(2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8,500	8,500	19,000	10,500
	지역문화예술지원	6,739	6,739	10,457	3,718	55.2
영화발전기금(2개)	영화제작 지원	17,311	17,311	35,482	18,171	105.0
	첨단영화기술육성	3,160	3,160	4,570	1,410	44.6
관광진흥개발기금(10개)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3,680	57,480	78,198	20,718	36.0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8,264	8,264	14,816	6,552	79.3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200	4,200	17,200	13,000	309.5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6,760	6,760	8,861	2,101	31.1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5,930	5,930	9,956	4,026	67.9
	스마트관광 활성화	7,747	7,747	16,912	9,165	118.3
	관광산업 용자지원(용자)	495,000	525,000	600,000	75,000	14.3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10,363	10,363	20,310	9,947	96.0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7,194	7,194	12,266	5,072	70.5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19,746	22,036	51,464	29,428	133.5
국민체육진흥기금(12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7,479	219,779	269,214	49,435	22.5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84,659	84,659	102,088	17,429	20.6
	국민체력인증	10,923	10,923	18,717	7,794	71.4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청사 이전	150	150	300	150	100.0
	우수선수양성지원	99,191	99,191	111,765	12,574	12.7
	주최단체지원	138,393	138,393	156,772	18,379	13.3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955	2,955	4,100	1,145	38.7
	스포츠창업 선도기업육 성 핵심기술 개발 (R&D)	1,949	1,949	3,782	1,833	94.0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28,981	28,981	67,606	38,625	133.3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41,220	41,220	76,220	35,000	84.9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37,799	37,799	56,558	18,759	49.6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18,610	18,610	33,837	15,227	81.8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생활SOC 사업 분석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2018.8.27.)」을 발표하면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¹⁾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19년 4월 현 정부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개 세부사업에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322억 1,300만원 증가한 9,06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SOC 사업 예산(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2020(안)(B)	증감	
			B-A	(B-A)/A
합 계	674,532	906,745	232,213	34.4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94,660	257,824	63,164	32.4
생활권형	58,000	107,164	49,164	84.8
장애인형	30,000	63,600	33,600	112.0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6,660	43,660	17,000	63.8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80,000	43,400	△36,600	△45.8
체육진흥시설 지원	234,130	244,110	9,980	4.3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10,810	11,356	546	5.1
레저스포츠시설지원	3,840	5,742	1,902	49.5
생활체육공원조성	19,699	24,382	4,683	23.8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36,414	22,444	△13,970	△38.4
지방체육시설지원	163,367	180,186	16,819	10.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9,195	78,385	9,190	13.3

1)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19.4.1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2020(안)(B)	증감	
			B-A	(B-A)/A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24,040	269,483	145,443	117.3
공공도서관건립지원	82,153	203,749	121,596	148.0
작은도서관조성지원	23,278	4,630	△18,648	△80.1
생활문화센터조성지원	18,609	61,104	42,495	228.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0	5,200	5,200	순증
문화예술 교육공간 조성사업	0	5,200	5,200	순증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14,000	24,000	10,000	71.4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10,000	10,000	0	0
문화자원 실감형 체험관 조성	4,000	14,000	10,000	250.0
게임산업 육성	6,600	2,400	△4,200	△63.6
E스포츠 상설경기장	6,600	2,400	△4,200	△63.6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655	4,603	△1,052	△18.6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13,891	7,291	△6,600	△47.5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5,416	4,204	△1,212	△22.4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6,945	9,245	2,300	3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황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²⁾은 국민체육센터(일반형, 장애인형, 생활권형),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중대도시형, 소도시농촌형)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494억 3,500만원이 증액된 2,69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4,682	207,479	219,779	269,214	49,435	22.5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2,540	100,469	108,469	181,704	73,235	67.5
-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18,329	10,469	10,469	8,940	△1,529	△14.6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9,671	2,000	2,000	2,000	-	-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일반형)	4,200	58,000	66,000	107,164	41,164	62.4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	30,000	30,000	63,600	33,600	112.0
개방형다목적 체육관건립지원	21,992	26,660	30,960	43,660	12,700	41.0
- 일반형	15,992	15,660	18,960	18,660	△300	△1.6
- 복합형	6,000	11,000	12,000	25,000	13,000	108.3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0	80,000	80,000	43,400	△36,600	△45.8
사업운영비	150	150	150	150	-	-
체육센터 조사분석 연구비	0	200	200	300	100	50.0

주: 운영부분이 생활SOC사업에 해당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2)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3-300

이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일반형)는 서비스 반경 2km(인구 4만명 당 1개소), 10분 이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체육 인프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개소 당 국고 지원액은 30~40억원 정액이고, 매년 10억원(단일), 13억원(복합)씩 3년 간 지원될 예정으로 2020년도 계획안에는 신규 55개소, 계속 45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총 1,07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개소당 30억원 또는 40억원 규모로 3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고, 2020년 계획안에 신규 30개소, 계속 3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636억원이 반영되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지역의 근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000㎡(303평) 규모로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탁의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고 개소 당 지원액은 10억원 정액이다. 2020년도 계획안에는 신규 68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총 434억원이 편성되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세부 편성내역]

유 형	신규	계속	개소 당 지원액	국고 보조율	비고
생활밀착형 (일반형)	688억원 (단일)9개소×10억 (복합)46개소×13억	383억 6,400만원 45개소×852.5억원	30억원	정액 지원	2~3년 분할 지원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336억원 (단일)18개소×10억 (복합)12개소×13억	300억원 30개소×10억원	30~40 억원	정액 지원	2~3년 분할 지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434억원 (단일)27개소×10억 (복합)41개소×4억	-	10억원	정액 지원	단년도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초·중·고 학교부지 또는 산업단지 내 부지를 활용한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2020년도 계획안에는 신규 20개소, 계속 15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총 43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세부 편성내역]

유 형		신규	계속	개소 당 지원액	국고 보조율	비고
일반형	중대도시형	63억원 7개소×9억	-	9억원 이내	30%	단년도 지원
	소도시농촌형	33억 6,000만원 7개소×4.8억	-	4.8억원 이내		
	수영장형	30억원 3개소×10억	60억원 6개소×10억	30억원 이내	정액 지원	2~3년 분할 지원
복합형	복합체육관형 30억원 3개소×10억	220억원 9개소×24.4억원	50억원 이내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는바, 내년도에 증액편성하여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실집행률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매년 교부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월금을 포함한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2016년 50.8%, 2017년 49.5%, 2018년 31.9%로 연례적으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동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를 사유로 200억원을 삭감한바 있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추경) 심사 시에도 40억원을 삭감하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바 있다.

[2016~2019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실집행액 (C)	이월액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C/B)
	당초	수정(A)							
2016	61,710	61,710	61,744	61,512	75,595	137,107	69,708	67,399	50.8
2017	43,124	43,124	42,509	42,374	67,399	109,773	54,347	55,426	49.5
2018	56,120	56,120	54,682	54,192	55,426	109,618	34,997	74,621	31.9
2019.8.	207,479	219,779	157,219	157,219	74,621	231,840	13,886	-	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19년도에 전년대비 1,636억 5,900만원(291.6%, 추경기준)이 증액되어 대폭 증가하였는데, 2019년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현재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6%에 불과하여 올해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실집행 현황(2019.8.)]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실집행액 (C)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C/B)
	당초	수정 (A)						
국민체육센터	207,479	219,779	157,219	157,219	74,621	231,840	13,886	6.0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00,469	108,469	75,937	75,937	52,145	128,082	10,125	7.9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10,469	10,469	7,469	7,469	34,189	41,658	7,511	18.0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000	2,000	0	0	13,756	13,756	2,596	18.9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일반형)	58,000	66,000	47,068	47,068	4,200	51,268	18	0.04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30,000	30,000	21,400	21,400	0	21,400	0	0.0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6,660	30,960	18,250	18,250	22,476	40,726	3,639	8.9
일반형	15,660	18,960	13,250	13,250	16,476	29,726	3,599	12.1
복합형	11,000	12,000	5,000	5,000	6,000	11,000	40	0.4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 육관 건립지원	80,000	80,000	63,032	63,032	0	63,032	122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일반형)는 실집행률 0.04%,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는 실집행률 0%이고, 개방형다목적 체육관(복합형)은 실집행률 0.4%,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실집행률 0.2%로 집행상황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밀착형(일반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복합형)은 2~3년 분할지원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내년도에 연차별 계획에 따른 계속사업 예산이 추가되므로,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실집행률 부진과 예산의 연쇄적인 이월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예산 확정 이후 공모에 의한 사업 선정 등 추진방식 및 절차 상 실집행 부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2020년부터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대상 사업을 사전 선정(19.8~9월)하고, 지자체가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확보 등을 준비토록 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에 계획 중인 국민체육센터는 정부의 생활SOC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미리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사업보다 개선된 점이 있으나,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 계속 삭감했음에도 2019년 8월 현재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6%에 불과하여 올해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20년도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계획안을 올해보다도 22.5%를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최근 국회의 지적사항의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집행률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황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³⁾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9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8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4,702	69,195	69,195	78,385	9,190	1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의2에 따라⁴⁾, 매년 체육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3)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3-30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

진흥투표권의 기금 전입금 중 5%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액은 1조 5,992억 5,300만원으로, 2020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안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액의 약 4.9%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은 ① 노후 체육시설 30%, ② 국민건강·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시설 50%, ③ 장애인시설 70% 등이다.

[2020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국고 보조율	20년 예산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 70개소 × 500백만원	30%	34,500
국민건강·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	○ 20개소 × 1,000백만원	50%	20,00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176개소 × 99.349백만원	70%	17,485
광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 6,400백만원(3차년도 공사비)	30%	6,400
합 계	-	-	78,3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매년 교부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월금을 포함한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2016년 35.4%, 2017년 33.6%, 2018년 48.6%로 연례적으로 저조하다. 2019년의 경우에도 8월 현재 실집행률이 13.1%에 머무르고 있다.

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6~2019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실집행액 (C)	이월액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C/B)
	당초	수정(A)							
2016	46,444	46,444	46,444	46,444	15,852	62,296	22,048	40,248	35.4
2017	107,327	107,327	106,969	106,969	40,248	147,217	49,525	97,692	33.6
2018	64,702	64,702	64,702	64,702	97,692	162,394	78,996	83,398	48.6
2019.8.	69,195	69,195	56,230	56,230	83,398	139,628	18,335	-	1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모에 의한 사업 선정 등 추진방식 및 절차 상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적행 부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2020년부터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을 사전 선정(19.8~9월)하여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확보 등을 준비토록 함에 따라 실적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은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후 지자체 공모 및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지자체의 매칭지방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실적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계획 중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미리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사업보다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9년 8월 현재 교부현액 대비 실적행률이 13.1%에 불과하여 올해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91억 9,000만원(13.3%) 증액된 2020년도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적행률 부진으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3.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필요

가. 현황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¹⁾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고 70%²⁾의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지원되며, 2020년 예산안에는 48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4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68,801	236,690	236,690	280,092	△43,402	△18.3
작은도서관 조성	872	23,278	23,278	4,630	△18,648	△8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까지 작은도서관 조성 실적을 보면 총 397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현재 정부의 생활 SOC 추진 계획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규모를 대폭 늘려 신규로 243개(현재 309개 지원확정)를 추가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232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작은도서관 조성목표 및 운영방향 관련하여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평가한 중장기적인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11-300의 내역사업
- 2) 지자체 자본보조로 지원(지원률 70%, '18년 최대 7,000만원, '19년 9,8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PC, 프린터 등에 지원). 리모델링 후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관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작은도서관 조성정책을 시행할 당시 연구하였던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06.12.)’, ‘작은도서관 진흥 계획 보고(2007.03.)’,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³⁾(2009~2013)’ 등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전국 3,560개 읍면동마다 1개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SOC사업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조성목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작은도서관 수(관)	6,427	6,556	6,687	6,820	6,956
전년대비 증감률(%)	-	2.0	2.0	2.0	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하지만 2018년 이미 전국에는 6,330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당초 조성목표인 3,560개를 크게 초과하는 개관 수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⁴⁾에 2023년까지 6,956개관을 목표로 작은도서관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⁵⁾

또한 과거 매년 10~15개 내외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던 규모를 대폭 늘려 2019년 현재 243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48개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확대 조성 계획은 단지 매년 2%씩 확대하여 2023년까지 전국 6,956개의 조성목표만 설정하고 장기 조성목표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나 조성방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현재의 작은도서관 수가 지역별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도서관 이용자 감소, 운영 실태 및 향후 변화하는 지식 정보 수요 콘텐츠 등을 반영하여 총 규모

-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5년 주기)되는 법정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관중을 아우르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서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 4)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의 과정을 보면 2018년도 4월부터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도서관 대내외 환경분석 및 대응방향,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도서관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포럼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관련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심의 확정된다.
- 5)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2019년 전까지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0~70%의 국고보조율로 차등 지원하던 방식이 2019년부터 70% 정률지원(복합화 80%)으로 변경되었다.

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산출 근거, 지역별 편차, 지역 거점형 공공 도서관과의 역할 분담 및 상호연계 방안, 기타 운영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에 그에 맞춰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결과보고서⁶⁾에 따르면 현재 작은도서관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연간이용자는 감소하고 있고, 폐·휴관 건수도 2016년 355개, 2017년 931개, 2018년 714개로 2017년 이후 매년 700개 이상의 기존 작은도서관들이 폐·휴관을 반복하고 있다.

[2016~2018년 작은도서관 현황 및 연도별 이용자 현황]

(단위: 관,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작은도서관 수	5,914	6,058	6,330
폐·휴관 현황	355	931	714
폐·휴관 비율	6.0	15.4	11.3
연간 이용자(천명)	-	37,072	37,030
1관당 인구수 ¹⁾	-	8,647	8,187

주: 1) 1관당 인구수는 매년 12월 기준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를 작은도서관 수로 나눈 자료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인 D, F를 받은 도서관이 2016년 2,409개(40.7%), 2017년 2,495개(41.2%), 2018년 2,696개(42.6%)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도서관 중 40% 이상이 인적(사서 부족), 물적 자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이용자 서비스가 미흡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기초 통계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단위: 개, %)

평가등급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서관수	비율	도서관수	비율	도서관수	비율
A	229	3.9	259	4.3	279	4.4
B	1,243	21.0	1,206	19.9	1,256	19.8
C	2,033	34.4	2,098	34.6	2,099	33.2
D	2,030	34.3	1,986	32.8	2,161	34.1
F	379	6.4	509	8.4	535	8.5
D,F 소계	2,409	40.7	2,495	41.2	2,696	42.6
합 계	5,914	100.0	6,058	100.0	6,330	100.0

주: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지표는 ①인력(사서자격 중 보유 인력 수 등), ②시설(면적 등), ③자료(보유 장서 수 등), ④예산, ⑤이용자 서비스, ⑥ 지역교류 등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을 2023년까지 7,000여개로 확대하기 위해 설정한 연차별 추가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평가한 중장기적인 조성 계획 수립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7)

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법」 제12조)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부위원장은 문체부장관)하며 기재부·문체부·교육부 등 주요부처 장관 11인과(당연직)과 도서관 관련 전문가 18인(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 9월 17일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는바, 3대 혁신전략으로 ① 정책금융 확충, ②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 ③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실감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쉽지 않다고 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에서 전국 40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실감형 체험존을 구축하고,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서 국립박물관·도서관 등 실감콘텐츠 체험관 10개소,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1개소, 장애인 대상 VR 드림존 10개소, 광화문 실감콘텐츠 체험관 2개소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도 실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 관련 사업 예산(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2020(안)(B)	증감	
			B-A	(B-A)/A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7,649	32,086	24,437	319.4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0	20,000	20,000	순증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26,125	97,455	71,330	273.0
실감형 콘텐츠 향유인프라 조성	4,000	22,000	18,000	450
국립박물관, 도서관 등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4,000	10,000	6,000	150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0	8,000	8,000	순증
장애인 대상 VR 드림존 조성	0	4,000	4,000	순증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0	40,000	40,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1.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준비 철저 필요

가. 현황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¹⁾은 실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실감형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수요를 창출하고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제공을 통해 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97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10,387	26,125	26,125	97,455	71,330	273.0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0	0	0	40,000	40,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인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는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하여 우리의 기술·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개요 및 세부 편성내역]

1.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특별시 등
2. 사업내용: 박물관, 문화유적, 관광자원이 집약된 광화문 일대를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성
3. 세부 편성내역
 - 체험공간 조성: 200억원(2개소×100억원)
 - 설비공사 설계 및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및 내부인테리어, 조명 구현·관람 편의시설, 실외 조형물, 컨시어지 등 안내시스템 등
 - 콘텐츠 개발: 200억원(10종×20억원)
 - 공간체험(도로 홀로그램, VR미니버스), 대형공연, VR·AR 게임, K-Pop 체험 등 제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2-30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3월 부처 내에 실감콘텐츠 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4월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5G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실감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서울시 간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방향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추진경과]

- '19.3.~, 문체부 「실감콘텐츠진흥위원회」구성·운영
- '19.4.~, 관계부처 공동, 「5G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 수립
- '19.5.30., 문체부 - 문화재청 - 서울시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방향 공유
- '19.6.26., 문체부 - 서울시 체험공간 조성 대상공간 업무 협의
- '19.7.12., 문체부 - 서울시 - 공간디자인·VR 전문가 추진계획 점검
- '19.7월말, 20년도 정부안 400억원 예산 반영
- '19.7.30., 실감형콘텐츠 진흥위원회 추진계획 점검 및 개선의견 논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내실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2020년 1~2월에 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제작 공모를 하여 2020년 12월에 체험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계획]

-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 9~12월)
- 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제작 공모('20. 1~2월)
- 체험관 조성 완료 및 콘텐츠 집중 시연('20. 12월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검토한 바 있다고는 하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실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관계집단의 의견 수렴 역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2020년 1~2월에 체험관 조성 및 제작 공모 후 12월 경 체험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당해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 선행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의 과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과거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추진할 때 정부와의 갈등, 소통부족, 예산낭비 등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하고 일반국민, 서울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의 연기를 발표(9.19.) 하였는데, 광화문광장 근처에 체험관을 조성하려던 동 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은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공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여론수렴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2.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 필요

가. 현황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¹⁾의 내내역 사업인 ‘국립박물관, 도서관 등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사업과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체험관 조성 시 필요한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이다. ‘국립박물관, 도서관 등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국립박물관·도서관 등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10,387	26,125	26,125	97,455	71,330	273.0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0	4,000	4,000	22,000	18,000	450.0
국립박물관, 도서관 등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0	4,000	4,000	10,000	6,000	150.0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0	18,870	18,870	29,800	10,930	57.9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0	10,000	10,000	10,000	0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곳을 시작으로 국립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국립박물관(경주, 부여, 공주, 김해, 춘천, 제주)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총 10곳에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할 예정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체험관에 설치하는 실감콘텐츠 제작비용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2-303

[2019~2020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 예산안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안)
체험관 구성	예산	40억원(4개소×1,000백만원)	100억원(10개소×1,000백만원)
	규모	4개소	10개소
	대상 사업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 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 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경주, 부여, 공주, 김해, 춘천, 제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 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콘텐츠 제작	예산	100억원(20종×50백만원)	100억원(20종×50백만원)
	규모	20종	20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동 사업예산을 감액한 취지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제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 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1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동 사업은 일부 박물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20억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2019년 본예산 감액예산을 다시 증액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60억원의 증액안을 전액 감액한바 있다.

[2019년도 본예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감액 현황]

구 분	편성	심사	감액 사유
2019년도 본예산 심사	160억	△120억	○ 박물관은 유물 관리 등이 본연의 업무 이므로 일부 박물관에서 시범 추진필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60억	△60억	○ '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감액예산 편성 부적절 ○ 추경편성요건에 미부합

자료: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편, 2019년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실감콘텐츠 체험관과 콘텐츠 제작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체험관의 경우 2019년 9월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12월에

체험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 2019년 9월 현재 콘텐츠 제작 수행 중으로 내년도 2월에 콘텐츠 제작이 완료될 계획으로,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인 2월 말이나 3월경 체험관이 개장될 예정이다.

[2019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 진행상황]

구 분	기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체험관 구성	'19.1~4월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실시
	'19.6~7월	체험관 조성 용역 조달청 발주
	'19.9월 현재	실시 설계(중앙·광주·대구·청주 박물관)
	'19.10~12월	체험관 조성(중앙·광주·대구·청주 박물관)
콘텐츠 제작	'19.1~4월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실시
	'19.6~7월	콘텐츠 제작(20종) 용역 조달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19.9월 현재	콘텐츠 제작 수행 중(9월초 용역계약 체결)
	'19.9~'20.2월	콘텐츠 제작 완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①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특성상 콘텐츠 기획 및 선정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② 콘텐츠 제작의 경우 보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²⁾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동 사업 예산을 감액한 취지는 2019년에 일부 박물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제작된 콘텐츠의 품질이나 체험관 이용자의 만족도 등 결과를 보고 향후 확대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체험관과 콘텐츠제작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들어 5세대이동통신 상용화 등 정책 환경 변화는 일부 있었으나, 2019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제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과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 심사에서 감액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 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은 2019년 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기본계획 및 사업 수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2020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예정기관 10개소는 기관별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현재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서 내년 체험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3. 박물관·미술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시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가. 현황

박물관·미술관 협력강화 사업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¹⁾의 신규 내역 사업으로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 활용하여 지역 간 문화향유 편차 감소 및 교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총 213억 2,500만원으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에 200억원, 박물관·미술관 기획사업 및 협력프로 그램 운영지원에 8억 2,500만원, 국제교류 전시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7,227	7,649	7,649	32,086	24,437	319.4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0	0	0	21,325	21,325	순증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0	0	0	20,000	20,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중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을 위하여 전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중 공모과정을 통해 40여개를 선정하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체험존 구축을 위하여 최대 5억원(지자체 자본보조사업, 50%)을 지원한다.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지원 세부 편성내역]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전국 40개 박물관·미술관 × 5억원	20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33-300

나. 분석의견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의 이용실태,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참여관을 선정하고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 효과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이 도시에 집중된 디지털 이용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 효과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참여기관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박물관을 선정하여 체험관을 조성하고 동 체험관에 전시할 실감형 콘텐츠(20종)를 개발 중에 있으나 실감콘텐츠 체험관과 콘텐츠 제작 진행 상황을 보면 체험관은 12월 중에 완료될 계획이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 내년도 2월에 완료될 계획이므로 현재까지 제작된 콘텐츠의 품질이나 체험관 이용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즉, 현재 조성 중인 실감콘텐츠 체험관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40개 지방 박물관·미술관에 추가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성 개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 사업은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의 이용실태,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비교적 제반여건이 양호한 참여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향후 콘텐츠 완성도, 이용자 만족도 등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 확대를 위해서는 중복되는 콘텐츠로 제작되는 체험존 조성을 지양하고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거나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부처와 연계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인 지역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유치 확대 및 재방문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각의 지역 박물관에서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순회전시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범용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콘텐츠 기술적 완성도나 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기술개발·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VR·AR 디바이스와 실감콘텐츠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VR·AR,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술 개발과 개발 인프라 구축, 글로벌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2020년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을 4차원(시간+3D)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역사적 사건과 멸실된 문화유산, 의례 등을 기록·복원·재현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대규모 콘텐츠를 제작하려 하는 여러 부처들의 기술 개발 및 제작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모단계에서 지자체 신청 박물관 및 미술관 신청 시 일부 지역에 편중하거나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여관을 선정할 때, 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²⁾와 연계하여 인증기관에게는 공모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인증제 평가지표 중 대부분은 타 박물관 대비 상대화된 평가점수를 통해 박물관별 점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고, 서울역사박물관과 경기도 박물관과 같이 규모가 큰 박물관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박물관별 운영특성(종합박물관, 테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박물관 선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연계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한류마케팅 강화 및 한류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과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¹⁾은 콘텐츠 기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 마련과 지속적인 한류 확산 추진으로 우호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9억 9,800만원이 증액된 3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사업²⁾은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6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4,200	13,184	13,184	32,182	18,998	144.1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11,477	16,881	16,881	30,529	13,648	8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K-Pop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 지원을 강화하고(민관협력 콘텐츠 동반진출 지원 15억, 모꼬지 코리아 21억 등), 한류축제를 활성화(K-컬처 페스티벌 61억, K-Music City Festival 60억 등)하여 한류상품 판매 및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1-303

2) 코드: 일반회계 1232-301

[한류 연계 동반진출 지원 강화 및 한류축제 활성화 관련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2020년 예산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콘텐츠 동반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및 한류상품 전시 및 체험이벤트 개최 - 제조/서비스기업과 콘텐츠 기업 공동 마케팅 지원 - 현지 유통, 배급, 플랫폼사 대상 리셉션 개최 등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꼬지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공연 등 한류 콘텐츠 행사 개최 - 현지 진출 서비스업/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한국문화 소개 - 뷰티, 한식, 증기제품 등 홍보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 콘텐츠소비재 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 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개발 지원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컬처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페스티벌 상·하반기 연2회 개최 - 한식, 뷰티, 문화체험 등 부대행사 개최 	6,100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usic 시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디음악 공연 제작 및 홍보 공연영상 제작·송출 - K-Pop 대관료 지원 및 홍보 공연영상 송출지원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usic City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각 1회(유럽 또는 미주권) 공연 개최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가상 아이돌 인터랙티브 체험 및 홀로그램 공연 체험관 조성·운영 	3,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K-컬처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가. 현황

정부는 작년에 「2019 경제정책방향(2018.12.17.)」을 발표하면서 2019년 경제정책 과제에 K-Pop 페스티벌을 포함하였고, 최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2019.4.12.)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에도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상설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K-Pop 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K-컬처 페스티벌이라는 사업명으로 61억원을 신규편성하였다.

[2020년도 K-컬처 페스티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4,200	13,184	13,184	32,182	18,998	144.1
K-컬처 페스티벌	0	0	0	6,100	6,1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5월~6월 중 1주일 가량을 민간행사(드림콘서트)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1개월 가량을 주요 지자체 K-pop 공연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K-컬처 페스티벌 개최 계획(안)]

구분	상반기	하반기
행사명(안)	Dream Festival	K-Culture Festival
주관	민관 공동	지자체 · 공공기관 시기 연계
기간	5월~6월 말 중 1주일 단위	○ 10월 중 1개월 단위 ○ 주요 지자체 사업 개최 시기 활용
내용	민간행사 활용(드림콘서트), 서울신문 협력 케이팝 커버댄스 연계, 중·소규모 케이팝 공연 등(한식 부스, 전시체험)	MU:CON(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 뮤직 페스티벌(서울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부산광역시)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K-컬처 페스티벌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20년 예산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스타 홍보대사 위촉 및 팬미팅 : 300백만원 ○ 개막식 연계 공연(드림 콘서트 연계) : 250백만원 ○ 폐막공연 : 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조성(대관료, 무대조성, 시스템, 안전점검 등) : 300백만원 - 출연료 : 30백만원×10팀=300백만원 - 부대행사(문화체험부스, 레드카펫 등) :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 K-인디 미니 콘서트 개최 : 200백만원 ○ 궁중문화축전(Royal Culture Festival) 연계 부대행사 : 200백만원 ○ 홍보 및 부대비용 :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1,950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K-pop 공연 연계 부대행사(개막) : 150백만원 ○ K-컬처(노래, 춤, 사물놀이, 부채춤 등) 공연 : 900백만원 ○ 한류 5G 체험형 부스 운영 : 800백만원 ○ K-Pop 권역별 공연 지원 : 9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공연 개최 지원 : 100백만원×7개지역=700백만원 - 부대행사 운영 지원 : 50백만원×4개지역=200백만원 ○ K-pop 스타 열차 운영 : 700백만원 ○ K-인디 미니 콘서트 개최 : 200백만원 ○ 홍보 및 부대비용 : 500백만원×1식=500백만원 	4,150
계	-	6,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K-컬처 페스티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K-Pop 공연은 사업 특성상 단기간의 수익이나 효과에 머물 우려가 있으므로, 연관 산업의 성장과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K-컬처 페스티벌을 추진함에 있어 K-pop 공연을 중심으로 한식·뷰티·문화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한류 콘텐츠 전반에 대한 호감도 제고 및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의 특성상 대략의 사업계획 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부대행사 계획, 외래 관광객 유치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Pop 공연은 1회성 이벤트로 끝나기 쉽고, 일부 인기 K-Pop 연예인에 의존하는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익이나 효과에 머물 우려가 있다. 또한 K-Pop 공연 개최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성과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결과가 연관 산업의 성장과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세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달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K-컬처 페스티벌 하반기 개최 시 기존 사업에서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10월에 국가나 지자체, 민간에서 주최하는 K-POP 공연이 많으므로 개최 시기와 지역을 조율하는 등 외래관광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여러 세부사업에서 K-Pop 관련 공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바, 2019년 10월의 경우에는 3개의 세부사업에서 5개의 K-Pop 공연을 직접 주최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 페스티벌은 10월에 K-Pop 공연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10월 중 1개월 가량을 주요 지자체 K-Pop 공연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인데, 지자체 K-Pop 공연 개최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이 기존 사업에서의 지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이 중복·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 10월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K-Pop 공연이 많고, 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는 점과 국가·지자체 외에 민간에

서 주최하는 K-Pop 공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K-Pop 공연 및 부대행사의 개최 시기와 지역을 조율하는 등 외래관광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달 K-Pop 공연 지원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행사명	기간	주최	국고 지원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아시아송 페스티벌)	아시아송 페스티벌	10.11 ~12	문체부, 울산시	800
국가이미지 홍보 (K-Pop 월드페스티벌)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10.11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창원시	200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K-Pop 콘서트 활용 외래객 유치)	강릉 커피축제와 함께 즐기는 K-POP 콘서트	10.5.	강원도 강릉시	150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10.11.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창원시	50
	2019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10.19. ~25.	부산관광공사	150

주: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은 두 세부사업에서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전략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현황

모꼬지 코리아 사업은 K-Pop 등 한류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현지에 진출한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한국 생활문화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소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0년도 모꼬지 코리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4,200	13,184	13,184	32,182	18,998	144.1
모꼬지 코리아	0	0	0	2,100	2,1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남방 및 신북방국가 3개국을 선정하여 국가당 1주일 간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꼬지 코리아 세부 편성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공연(출연료) : 40백만원×4개팀×3개국 = 480백만원 ○ 운영요원 체재비 및 항공료 : 2백만원×50명×3개국 = 300백만원 ○ 장소 임차료 : 50백만원×3개국 = 150백만원 ○ 무대구성(무대설치, 장비임차료) : 100백만원×3개국 = 300백만원 ○ 전문가 활용비(연출, 조명, 촬영, 영상 등) 50백만원×3개국 = 150백만원 ○ 행사장 조성(레이아웃 및 인테리어) : 50백만원×3개국 = 150백만원 ○ 부스운영 : 50개(3*3)×1백만원×3개국 = 150백만원 ○ 부대공연 및 상영(K-pop 댄스교실, 난타, 드라마, 영화 등) : 70백만원×3개국 = 210백만원 ○ 행사홍보비 : 20백만원×3개국 = 60백만원 ○ 기타 부대경비(대행료 등) 150백만원×1식 = 150백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모꼬지 코리아 사업 추진 시 과도한 상업성이나 수출전략 차원의 일방적인 접근이 아닌 상호 문화이해 및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꼬지 코리아 사업은 해외 현지에서 K-Pop 공연을 개최하면서 부대행사로 현지진출한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뷰티, 한식, 중기제품 등의 홍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및 한류확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류는 소프트파워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높여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 분야의 수출을 견인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 추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한류 성장국가를 중심으로 한류의 공격적 진출, 지나친 상업성 등에 반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³⁾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 주도 한류확산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한류 확산 전략 연구 보고서’⁴⁾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한류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격적인 수출전략에 치중된 기존 한류의 개념과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한류를 ‘국가산업’으로 인식하여 한류 상품 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관여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한류의 확산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한류 확산의 한계(수출지역이 아시아에 편중, 장르가 게임에 편중)가 지적되고, 국가 간 정치·외교문제, 한류 반감 등 한류의 지체요인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양적 매출 증가와 시장 확대가 주목적이었던 한류의 방식을 탈피하여 쌍방향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꼬지 코리아 사업이 정부 주최의 K-Pop 공연으로 공격적 진출로 비춰지거나 지나친 상업성을 띠는 경우 자칫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반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3)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6년 21.1%에서 2017년 31%로 9.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3.18.

따라서, 동 사업 추진 시 과도한 상업성이나 수출전략 차원의 일방적인 접근이 아닌 상호 문화이해 및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략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대상국가 선정 시에도 한류 확산 정도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의 선정이 필요하다.

3-3. K-Pop Experiences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황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사업은 K-Pop 음악관련 관람객 참여형 체험·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0년도 K-Pop Experiences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11,477	16,881	16,881	30,529	13,648	80.8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0	0	0	3,500	3,5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올림픽 체조경기장 내 일부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사업내용은 ① K-Pop 가상 아이돌 인터랙티브 체험, 홀로그램 가상공연 체험관 조성·운영, ② 시대별 대중음악사 관련 소품전시 및 뮤지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 ③ 대중음악 악기 실습실 및 보컬 댄스 연습실 등 운영으로 나뉘 추진할 계획이다.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예산내역	20년도 예산
전시 및 체험공간 구축	○ 공간 200평×10백만 원	2,000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콘텐츠 개발 50백만원×15종 ○ 시스템 구축 250백만원×1식	1,000
전시·체험관 운영	○ 특별전시 공간 조성·운영 300백만원 ○ 상설 전시체험실 운영 200백만원	500
합 계	-	3,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추진으로 K-Pop Experiences 사업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K-Pop Experiences가 조성될 예정인 올림픽 체조경기장은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⁵⁾ 추진일정에 따르면 2020.7~12. 공사, 2020.12. 공사 준공 및 체조경기장 개장 예정으로 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관람객 주 사용공간인 지상2층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노후화된 의자를 교체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 (공연장 내부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추진일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20.02.~03. 설계용역 발주, 계약체결- '20.06. 설계용역 완료, 공사 발주계획 수립 및 조달청 계약의뢰- '20.07.~12. 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 공사 시행- '20.12. 공사 준공 및 체조경기장 개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따라 체조경기장 내에 조성 예정인 K-Pop Experiences 조성 사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조경기장 리모델링은 관람석 노후의자 교체 등 주로 공연장 내부 관람시설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고, K-Pop Experiences 체험관은 관람시설 외 여유공간에 조성할 계획이므로 리모델링과 별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기간인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체조경기장을 폐쇄할 예정이므로, K-Pop Experiences 체험관이 조성되더라도 체조경기장이 개장하는 2020년 12월이 되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올림픽공원 운영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364-302) 사업에 170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사업예산 중 체험공간 구축과 콘텐츠개발 및 시스템 구축은 연내에 가능해보이나, 전시·체험관 운영예산의 경우 12월 개장에 따라 일정부분 불용되거나 이월집행하는 등 연내집행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⁶⁾

동 사업은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공정에 따라 운영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고, 현재 계획 상으로도 내년 연말에서나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험관 개장 전이라도 운영인력 채용 및 프로그램 준비 등에 운영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가. 현황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하기 위해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뮤지엄숍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3억 4,200만원이 증액된 247억8,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7,501	39,826	39,826	68,275	28,449	71.4
국립세계문자 박물관 건립	2,060	13,445	13,445	24,787	11,342	84.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613억원으로 당초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각종 인허가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의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2019년 착공으로 변경되었다.²⁾ 현재 건립공사 용역계약이 발주 중이며 10월 중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134-701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건축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처리 소요기간으로 인해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완공에 필요한 절대공기 확보(24개월)를 위해 사업기간이 연장(21년 말까지) 되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

- 총사업비: 613억원(국고 100%)
- 사업기간: 2016년 ~ 2021년
- 사업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사업비	1,894	1,298	12,995	22,535	22,552
공사비	-	1,519	12,164	21,953	21,96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내년도 이월예상액을 포함한 총 공사비 예산액 중 실제 소요되는 집행가능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해 2019년 예산에 반영된 공사비는 121억 6,400만원이며, 이 중 2019년 계약자 선정관련 낙찰 차액(1,490백만원)³⁾과 공사선급금(계약금액의 44%, 4,696백만원) 집행액을 감안하면 2020년도로 59억 7,8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된다.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공사비 예산으로 219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올해 이월예상액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상 예산총액은 279억 3,100만원 정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220억 정도(건축공사의 50%)로 계획하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공사발주가 진행 중이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하더라도 소요되는 기간 및 공사비를 감안하였을 때 약 60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비·시설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해야한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 「2020년도로 공사비 이월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19년 집행액	[12,164(예산액) - 1,490(낙찰차액)]×약 44%(선급집행률)	4,696
'20년 이월예상액	12,164 - 1,490 - 4,696	5,9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사비 집행현황 및 불용예상액]

(단위: 백만원)

2019('19.8월말)				2020년도 불용예상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 예상액	이월 예상액 (A)	예산안 (B)	예상 예산총액 (C=A+B)	집행예상액 (D)	불용 예상액 (C-D)
12,164	12,164	4,696	5,978	21,953	27,931	22,000	5,9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내년도 이월예상액을 포함한 총 공사비 예산액 중 실제 소요되는 집행가능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사업은 예술분야 창업, 기획, 유통, 홍보 분야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인재양성을 통해 예술분야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이 중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사업의 신규 내내역 사업으로 예술분야 창업, 기획, 유통, 홍보 분야에서 종사하기를 원하는 현장 경험이 없는 예비 종사자에게 창업교육, 직무교육, 현장 실습 기회 등을 제공하여 차세대 창업·기업가 및 예술분야 지원 전문종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신규, 민간경상보조 100%)이다.

2020년 예산안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보면, 창업·기업가 양성에 10억 5,000만원, 전문 종사자 양성에 5억원, 취업 박람회 개최 등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술의 산업화 추진	3,039	5,942	5,942	8,701	8,701	2,759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0	0	0	3,000	3,000	순증
인재양성	0	0	0	2,200	2,200	순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공연예술실태조사²⁾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연예술 산업의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633-306

2) 「2018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단체 중 민간기획사는 9.8%, 민간공연단체 78.1%, 국공립단체 12.1%이며, 공연단체 종사자 수 중 단원은 86.7%, 지원인력은 13.3%이다.

종사자가 창작·실연자 중심의 예술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사무·기술 등 지원인력이 13.3% 불과 하는 등 지원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홍보 등의 일반 사무직도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수성상 타 분야에 비해 첫 일자리에 대한 입직기간이 길고 직업관련 교육·훈련 경험이 적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을 통한 현장 업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0년도에 신규로 추진될 인재양성 사업의 주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보면 예술분야 예비 종사자를 ‘창업·기업가 양성’ 과 ‘전문 종사자 양성’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상별로 그 특성에 맞는 준비교육과 현장 실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 사업 사업내용 및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사업내용	2020년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가 양성 (50명, 교육·실습 1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준비 교육(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1인당 총 300시간(4주×5개과정) - (교육과정) 기업가정신, 시장분석, 사업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유통확산 ■ 현장 멘토링·실습 지원(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6개월 	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종사자 양성 (50명, 교육·실습 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준비 교육(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예술분야 전공생 중 예술분야 입직희망자 - (교육시간) 1인당 총 60시간 - (교육과정) 직업세계 분석, 기획·경영 등 ■ 직무 현장 실습 지원(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직무 준비교육 수료생 중 예술분야 취업 희망자 (50명), 예술분야 단체·기업(1년이상) 중 실습희망 단체·기업 - (추진방식) 예술분야 기업·단체·기관, 전국 예술관련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 협력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취업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박람회 개최 ■ 기업 및 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개편·운영 	650
합 계		2,2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세부프로그램 중 ‘창업·기업가 양성’ 과정의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선발하여 5개월(300시간, 5개 과정)의 창업준비 교육 후 6개월 동안 실습희망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도록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총 11개월이 소요되는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월에 참여자 선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창업·기업가 양성 및 전문 종사자 양성 추진일정]

구 분	창업·기업가 양성	전문 종사자 양성
교육계획수립	1월	1월
교육	2월~6월(5개월)	3월~5월(3개월)
실습	7월~12월(6개월)	6월~11월(6개월)
성가공유 및 평가	12월	12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 위해서는 공고 기간,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모 후 교육생 선발까지 1.5~2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11개월의 교육 및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실습 참여 대상자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1년 내에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 종사자 양성’ 과정의 경우에도 약 3개월(60시간)의 직무 준비교육 후 직무 현장 실습 지원(6개월)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실제 2020년 2월 안에 대상자 모집 및 선발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동 사업이 신규 사업이므로 예비종사자(전국 3,943개 학과, 약 6만 3,000여명 졸업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 취지 설명 및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예비종사자들이 교육과 실습을 마친 후 관련 분야에 적기 투입되어 활동하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별 적합한 강사 섭외, 희망하는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심도 높은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데 동 사업의 계획이 정밀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과정과 추진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사업의 추진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 사업의 교육 실시 장소가 서울에 위치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관련학과 졸업생에게는 교육의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설계 시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를 전국 예술관련 1,965개 학과 63,333명의 졸업자로 파악하고 이 중 ‘창업·기업가 양성’ 과정과 ‘전문종사자 양성’ 과정에 각각 50명씩을 선정하여 교육과 실습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자를 산술적으로 졸업생의 1%로만 가정해도 약 630명이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동 사업 대상자로 파악한 지역별 예술 관련 학과 및 졸업자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졸업생 수는 31,771명(50.2%)으로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 비중(31,562명, 49.8%)과 비슷하다

하지만 동 사업의 교육장소가 서울에 위치할 경우 지방의 관련학과 졸업자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지원 여부에 따라 그 혜택은 특정 지역에 한정적일 수 있다.

[지역별 예술 관련 학과 수 및 졸업생 수]

(단위: 개, %, 명)

지역		학과 수	비중	졸업생 수
수도권	서울	1,109	28.13	17,813
	경기	819	20.77	13,155
	인천	50	1.27	803
소계		1,978	50.17	31,771
비수도권	강원	111	2.82	1,783
	경남	56	1.42	899
	경북	238	6.04	3,823
	광주	87	2.21	1,397
	대구	93	2.36	1,494
	대전	143	3.63	2,297
	부산	348	8.83	5,590
	세종	67	1.70	1,076
	울산	17	0.43	273
	전남	87	2.21	1,397
	전북	202	5.12	3,245
	제주	53	1.34	851
	충남	263	6.67	4,224
충북	200	5.07	3,212	
소계		1,965	49.83	31,562
총계		3,943	100	63,3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교육이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예술관련 창업과 기획·사무·기술 등 지원 직군으로 진출하려는 예비종사자에는 창업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으로 인한 수혜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졸업자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교육생 선발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금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교육과정의 참여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¹⁾은 「문화예술진흥법」²⁾에 따라 열악한 예술계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신규로 도입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재원 180억원과 용자사업 운영 경비 10억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05억원이 증액된 19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0	8,500	8,500	19,000	10,500	1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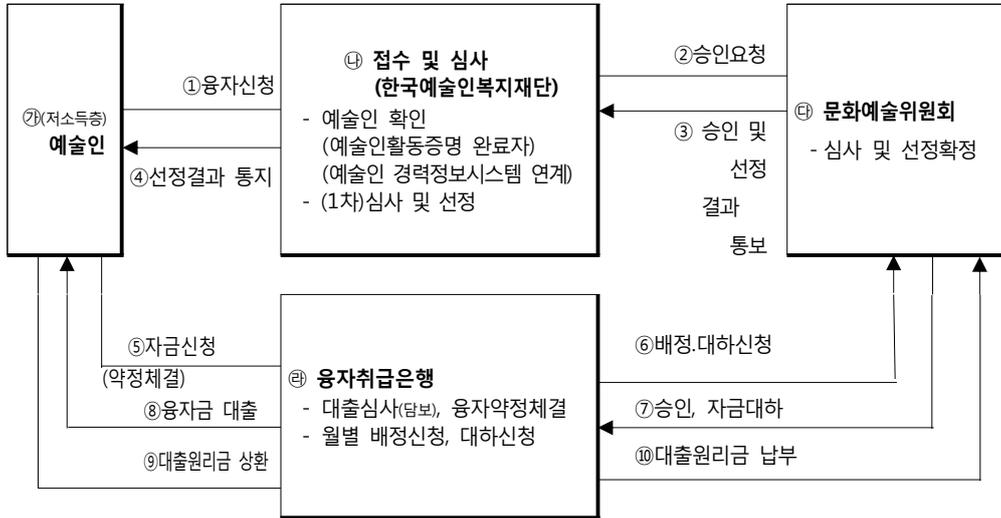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저소득층 예술인이 용자신청을 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용자 접수, 예술인 확인³⁾, 용자 심사 및 용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문화예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용자취급은행이 용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5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3) 용자사업의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19년 8월 현재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65,301명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년에는 예술작품, 공연계약서를 담보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출상품의 종류와 전월세 주택 자금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도 시행되는 융자사업 변경 현황]

상품	2019년	2020년(안)
(소액) 생활안정자금대출	약 910명(32억)	약 2,000명(70억)
	세부상품: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한도: 5백만원)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상한액 4,000만원(40억)	상한액 1억(90억)
	세부상품: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임차중도금 등	
(예술저작 등) 담보대출	예술용역계약 대금체불생계비 융자[약 100명(8억)]	예술작품(예: 미술작품), 공연계약서, 저작권 담보 등 예술계 장르별 담보체계 점진적 구축 [약 250명(20억)]
	세부상품: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 한도: 1천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지역별로 용자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 8월말 현재 85억의 예산액 중 19억 5,000만원이 집행(22.9%)되었다.⁴⁾

[2019년 8월말 현재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집행액(B)	잔액	집행률(B/A)
예술인생활안정자금	8,500	1,950	6,550	2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지역별 예술인 용자자금 신청 통계를 보면, 서울(50.8%), 경기(22.4%) 및 인천(4.8%) 등 수도권 이용자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약 78%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출 신청·접수 창구로 전용누리집(홈페이지), 유선 상담창구 및 대면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면 창구(2곳)가 서울에만 위치하고 있어 지역 예술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용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문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등 지역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용자 이용자 통계(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부산
'19.7~8 신청자수	245	108	23	11	4	15	1	3	15
비율	50.8	22.4	4.8	2.3	0.8	3.1	0.2	0.6	3.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9.7~8 신청자수	7	1	6	12	4	7	16	4	482
비율	15	0.2	1.2	2.5	0.8	1.5	3.3	0.8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가지 대출 상품 중 소액생활안정자금만을 7월부터 운영하였기 때문이고, 추가로 전·월세(창작공간포함) 자금과 예술용역계대금 체불 대출상품은 각각 9월과 10월에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둘째,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는 상품별 대출지원을 늘려 용자 대상자가 2019년 1,200명에서 2,35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창작공간과 주거공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한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인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운영기간이 7~8월 2개월뿐이고, 전세자금대출은 2019년 9월 이후에 운영될 계획이므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연체율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예술인들의 수입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소액생활안정자금의 부실률을 18.9% 정도로 파악하였다.⁵⁾ 더욱이 내년에는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1인당 대출 상한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용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금융권 연체율, 햇살론, 미소금융 등 타 서민금융 지원상품의 연체율과 문체부 소액생활안정자금의 예상부실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금융권의 가계 신용대출 평균 연체율이 0.5%이고 햇살론의 경우 9.1%로, 예술인 용자의 연체율 등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 사업과 타 서민금융지원 상품 연체율 비교]

(기준: 2018년말, 단위: %)

구분	1금융권 신용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소액생활 안정자금(예상)
연체율	0.5	9.1	6.6	18.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개발,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자문 연계,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상환조력 프로그램 개발 등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전·월세자금대출 부실률은 1.7%, 예술저작 등 담보대출 부실률은 6.2%로 파악하였다.

가. 현황

문화도시 조성사업¹⁾은 신규사업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²⁾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문화도시 조성·홍보, 브랜드 구축 및 기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50%)로 전국 10개 도시 지원을 위하여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도시 조성 사업	0	0	0	10,000	10,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6억원,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비 및 지역문화자원 기록비 2억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지원 2억원 등 총 10억이 편성되었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66-300

2)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문화도시 장소재생 지원: 600백만원
- (문화장소 거점 조성) 200백만원(리모델링 등) × 2개소 = 400백만원
- (지역 문화재생 등 프로그램) 100백만원 × 2개 프로그램 = 200백만원
○ 문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 및 도시가치 발굴활용: 200백만원
-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100백만원
- (문화도시 지역문화자원 기록) 5백만원×아카이브 1식×2회 = 100백만원
○ 문화도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200백만원
- (문화도시 사회적경제조직 교육 컨설팅) 15백만원 × 2개과정(예비/성장) × 5팀 = 150백만원
-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25백만원 × 2개 프로그램 = 5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절차를 보면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5개 지정분야에 대해 문화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지정 예비도시를 신청하고 문체부 문화도시심의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하면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 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

[문화도시 지정절차(약 2년 소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현재까지 2018년 1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18.5~8월) 및 예비도시 승인('18.12월)과정을 거쳐 대구광역시, 부천시 등 10개 도시가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 12월경에는 예비도시들 중에 문화도시심의회 심의를 통해 5~1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19.3~6월)에 총 25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예비도시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약 30여개의 문화도시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³⁾

3) 지정된 도시에는 내년에 문화도시 장소재생 지원 6억원,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비 및 지역문화자원 기록비 2억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컨설팅 지원 2억원 등 총 10억을 지원하며 지정된 도시는 국고와 지방비로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지원받는다.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예비도시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고유의 특성과 차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인 환경정비와 재개발에 집중하면서 도시의 지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중앙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과정에 소홀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의 기본방향이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구축이므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과정에서 각각의 도시들이 수립한 문화도시 구축계획이 그간 유사한 지역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도시 사업에서 성공사례를 모방함으로써 획일화 되지 않도록 문화도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개별 특성과 고유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년도 정식 지정되는 제1차 문화도시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예비도시들이 사업과정에 필요한 제도 마련, 문화도시 사업 전담기구 설치 등 사전준비가 계획대로 추진 중인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비도시로 선정된 부산과 대구의 경우 문화도시 사업 전담기구인 문화도시센터 구성 및 설치가 필요한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조례 제정 등 문화도시 지정승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 미흡한 사례가 있다.

셋째, 동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 주도식(상의하달식) 사업추진 방식을 탈피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도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문화도시 선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도시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¹⁾은 모태펀드에 문화계정을 조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함으로써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모태펀드에 출자하면,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출자를 하고 자펀드에서 문화 분야 중소·벤처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며, (주)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0억원(95.2%)이 증액된 1,230억원이 편성되었다.²⁾

[2020년도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54,000	63,000	63,000	123,000	60,000	9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정부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³⁾(19.9.17)을 발표³⁾하여 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2배로 확대편성하고 기존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중 약 600억원을 기획·개발단계의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하여 사업 초기단계나 소외장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 2) 이는 정부가 평균 60% 비중으로 출자하였을 때 투자금이 매칭될 경우 2,0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이다.
- 3) 정부는 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확충,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 3대 분야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2020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모험투자펀드 신설) 운영구조 및 방식(안)]

구 분	목 적	출자 분야(예시)	출자금액(안)
일반투자펀드	· 산업경쟁력강화 · 중견기업 육성	· 뉴(NEW)콘텐츠펀드 · 기업지분투자전문펀드 · 콘텐츠 민간제안펀드	630억원
모험투자펀드	· 초기단계 투자 · 취약장르 지원	· 제작초기/기획개발 · 애니메이션, 출판, 음원 · 소액투자 전문펀드	60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내년도 예산안에 모태펀드 출자액을 대폭 확대하고 기획·개발 단계의 초기 제작 및 장르에 투자 비중을 늘렸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자액 증액에 따라 펀드결성 지연 등 적기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및 운용 목적이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현재의 취약한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실적에 따른 회수금을 재투자함으로써 문화산업 내 자금 선순환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① 적정 규모의 국고 출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② 이에 매칭 되는 민간 자펀드의 결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③ 그 결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기술보유로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문화계정 펀드의 조성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030억원, 2018년 1,320억원, 2019년 1,080억원의 예산과 회수금을 포함한 출자를 통해 2017년 2,040억원, 2018년 2,200억원, 2019년 1,949억원(추진 중)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출자의 비중은 평균 2017년 50.5%, 2018년 60.0%, 2019년 55.4% 수준으로 국고 출자 비중이 50%가 넘는다.

[최근 3년간 문화계정 펀드 조성 실적 현황]

(기준: 2019.8월말,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결성 중)
예산규모	530	540	630
출자규모(A)	1,030	1,320	1,080
결성규모(B)	2,040	2,200	1,949
출자비중(A/B)	50.5	60.0	55.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최근 펀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펀드결성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결성계획액이 1,049억원에서 1,600억원, 2,2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펀드 결성 완료시점이 2016년은 같은 해 12월, 2017년은 다음해 1월 26일, 2018년은 다음해 3월로 늦춰지고 있다.

[문화계정 펀드 결성계획액 및 펀드 결성시점]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결성계획액	1,049	1,600	2,200	1,949
최종 결성	'16.12.26	'18.01.26	'19.03.04	결성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예산안 결성계획액이 예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획·개발 초기 단계의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한다면 그간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계획한 민간펀드 결성 및 적기 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 펀드가 연내 결성되고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익률 악화로 인해 동 펀드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 있다.

문화계정의 모태펀드 운용 수익률은 △3.36%으로 중진계정 7.8%, 문체부 소관 영화펀드(△2.63%)나 모태펀드 전체 수익률(6.02%)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⁴⁾

[청산완료된 타 계정 모태펀드 수익률 비교]

(단위: 개, 백만원 %)

계정	조합수	모태펀드				
		약정액	집행액 (A)	회수액 ¹⁾ (B)	회수비율 (B/A)	수익률 ²⁾
문화	30	174,450	165,950	171,532	1.03	△3.36%
영화	5	32,000	32,000	28,687	0.90	△2.63%
중진 ³⁾	120	781,243	749,320	1,032,968	1.38	7.81%
모태 전체	185	1,210,293	1,168,870	1,507,457	1.29	6.02%

주: 1) 회수액은 투자활동 종료 후 출자자에게 지급된 금액(투자기간 고려 없음)

2) 수익률은 투자기간을 고려한 수익률(투자기간 고려)

3) 중진계정 현황은 2018.12.30.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19년 8월 현재 청산 완료된 30개 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청산 완료된 펀드 중 모집 시 설정한 기준수익률을 충족한 펀드는 1개뿐이고, 청산수익률이 0이거나 플러스인 펀드는 13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펀드는 17개다.⁵⁾

문화분야 모태펀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률은 아니지만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통해 동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 실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⁶⁾

4) 동 사업은 국회에서 최근 3년간 총 430억이 감액('17년 △270억, '18년 △40억, '19년 △120억)되었으며, 특히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국고 출자비중이 높고 수익률이 낮아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사유로 예산액을 120억원 감액(750억→630억)하였다.

5) [30개 문화계정 청산펀드의 수익률 현황]

구분	문화 계정 펀드(개)	비 고
수익률 < 0	17	기준수익률 5%~7% 설정
0≤수익률≤2	9	
2<수익률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문화분야 투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커서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제작 초기 단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험투자펀드의 신설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출자금 증액에 따라 개발 초기단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과 늘어난 출자금으로 자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수익률 악화가 심화·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태펀드 신뢰성과 자펀드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펀드와 모험투자펀드 유형별로 각각의 조성 목적에 적합한 출자규모, 출자비중 및 기준수익률⁶⁾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등 펀드 유형별 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태펀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업의 영세성, 제한적인 투자대상과 높은 투자리스크, 타 계정 대비 많은 정책적 제약 등으로 수익률 추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기준수익률이란 투자운용사들이 투자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기준수익률이 낮으면 초과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기회 및 금액이 늘어난다. 문화계정 기준수익률은 현재 2%(과거 5~7% → 2019년 2%로 인하)이다.

가. 현황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¹⁾은 국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의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매체활용 정책홍보	15,721	14,495	14,495	18,488	3,993	27.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국가 주요정책 광고 중 인터넷 광고의 확대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체별 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 주요정책 광고를 전년대비 3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4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주된 증액요인은 주요정책 광고 중 인터넷 광고를 전년대비 37억원 증액 편성한데 기인한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932-301

[2020년도 국가 주요정책 광고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안)	증감	
			B-A	(B-A)/A
국가주요정책 광고	10,402	14,095	3,693	35.6
주요정책 광고	7,988	11,982	3,994	50.0
인터넷	550	4,250	3,700	672.7
방송	3,445	3,933	488	14.2
옥외(극장, 열차, 전광판)	1,551	1,551	0	0
인쇄	1,280	1,280	0	0
제작/기타	1,162	968	△194	△16.7
국가기본정책장기캠페인	2,000	2,000	0	0
광고홍보 이벤트 및 정부정책광고 운영	413	113	△300	△72.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주요정책 광고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하여 매체환경 다변화(모바일, 온라인 매체 증가 등)에 따른 광고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특히 민간광고에 비해 인터넷 광고의 비중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광고 중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²⁾ 수준으로 인터넷 광고를 증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주요정책 광고 중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9%에서 2020년(안)에 따르면, 35.5%로 민간광고 수준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포털, 유튜브,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광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 광고는 연령대 및 관심사별 세분화된 타겟팅을 통해 도달률 높은 광고 제공 및 실시간 광고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요정책 광고 중 인터넷 광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비중을 민간광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전체 주요정책 광고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홍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처로서 정부정책 중 주

2)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민간광고의 매체별 비중은 인터넷 36%, 방송 35%, 인쇄 15%, 옥외 9%, 제작/기타 5% 수준이라고 한다.

요정책에 대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각 개별부처에서도 소관사업에 대해 자체 홍보예산을 통해 중요정책을 홍보 및 광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광고와 민간광고의 매체별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주요정책 광고비 뿐만 아니라 각 개별부처의 광고비도 모두 합하여 실제로 정부 전체 광고에서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광고 예산의 현실화와 인터넷 광고의 비중 증가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매체의 광고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증액된 상황에서 인터넷 광고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광고의 목적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별로 인터넷 광고의 장점이 최대화 될 수 있는 정밀한 온라인 매체 분석을 통한 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홍보 총괄부처로서 정부 전체의 정책광고가 매체환경의 다변화(모바일, 온라인 매체 증가 등)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터넷 광고의 확대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체별 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¹⁾은 한류 확산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순방계기 문화행사, 해외 주요계기 한국문화 소개, 주한 외국인 대상 문화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9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이미지 홍보	11,268	15,134	15,134	19,510	4,376	28.9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6,144	7,398	7,398	10,288	2,890	39.1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구축	0	0	0	3,625	3,625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활용 외에 다른 효과적인 콘텐츠 공급방안 및 체계적인 한류 크리에이터 육성·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내에 내내역 사업으로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구축 예산 36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²⁾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1인 방송운영자를 활용한 한류 종합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깊이 있는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문화홍보원은 내년도 본격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2019년도에 사전 준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3131-300

2) 편성내역: 영상채널 구축 및 운영 11억 7천만원, 유튜브 채널 운영 용역사업 20억원, 재외 한국문화원 스튜디오 개설·운영 4억 5,500만원

[19년 사전 준비 사업 추진 개요]

- 사업명: 한류 크리에이터 종합 채널 운영('19.7. ~ 12.)
- 사업내용: 국내거주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한류 1인 방송운영자로 양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 및 콘텐츠 업로드
- 추진계획: 6. 29(1인방송운영자 교육 설명회) → 채널개설 및 운영(7월 중) → 채널 시범 운영 및 신규예산 반영 추진(~'19.12.) → 채널 확대 운영(202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채널의 성공의 관건은 콘텐츠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바, 해외문화홍보원의 콘텐츠 수급방안에 따르면 ① 국내로는 한류 1인 방송운영자 및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콘텐츠 공동기획, 제작 지원을 추진하여 한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고, ② 국외로는 재외 한국문화원(27개국 32개소)에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등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한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간이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주로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통해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한국과의 문화적 소통, 교류에 관심 있고 SNS에 익숙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외문화원의 추천 또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직접 선발하게 되는데 주요 활동은 한국의 문화, 관광, 역사 등을 기사, 영상, 사진, 웹툰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개요]

- 현황: '19년 10월 기준 73개국 595명
- 활동내용: 한국의 문화, 관광, 역사 등을 기사, 영상, 사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부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9개어)과 개인 SNS 홍보
- 운영방식
 - (모집) 재외문화원 및 코리아넷을 통해 명예기자단 모집
 - * (~2018년) 연 1회 정기 모집 → (2019년) 연간 수시 모집
 - (예산) 명예기자단 우수 콘텐츠(기사 등) 제작 사례비 지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즉,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유튜브에 특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들을 1인 방송운영자로 양성한다는 계획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³⁾에서 콘텐츠의 꾸준한 업로드와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매년 초 청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문화홍보원도 사업의 성숙기(약 5년 후)까지는 한류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항목인 채널 운영비와 홍보비,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매년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채널 간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pop, K-beauty와 같은 인기 콘텐츠 외에 한국의 전통·관광 등을 소개하는 깊이 있는 콘텐츠의 확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과 아직 시범운영 중이기는 하나 유튜브 채널 코리아넷의 구독자는 7.81만명에 불과하고 최근 업로드한 콘텐츠의 조회수도 저조한 상황⁴⁾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당초 동 사업이 의도한 깊이 있는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 제작 및 확산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즉, 현재의 계획으로는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한류 크리에이터로 육성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콘텐츠 공급방안이나 이들은 계약을 맺고 일정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담보할 수 없고, 매년 크리에이터 육성 및 관리에 지속적으로 소모성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활용 외에 다른 효과적인 콘텐츠 공급방안 및 체계적인 한류 크리에이터 육성·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에는 코리아넷 명예기자단뿐만 아니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및 한류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존 유튜버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의 특성 상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수준으로 보이므로, 콘텐츠 공급과 한류 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운영대행업체가 각 크리에이터와 일정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이들을 공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생방송 운영 등 사업 운영의 기술적 측면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여 조회 수, 콘텐츠 제작 등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¹⁾은 제2선 관광도시 육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의 관광자원화로 국내 관광 활성화 도모 및 국내 관광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30억원이 증액된 172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497	4,200	4,200	17,200	13,000	309.5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0	200	200	15,900	15,700	78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최근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9.4.2.)」를 개최하여 안건인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서 지역혁신 대표 과제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57억원이 증액된 159억원을 편성하였다.²⁾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추진 배경으로 외래 관광객이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어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도시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① 서울, 제주 외 세계적 관광도시의 잠재력을 보유한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② 일정 수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2-318

2) 2019년에 편성한 2억원은 ‘관광전략거점도시 계획수립 및 컨설팅’ 명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현재 내년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 중이다.

의 기반을 갖춘 기초도시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고, 선정된 거점도시는 전략적·집중적 홍보·마케팅 및 도시 브랜드 관리 지원을 5년 간(2020~2024)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산출근거	20년 예산
국제관광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300) : 300백만원 × 1개 ○ 도시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정비(4,000) : 4,000백만원 ×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500백만원 × 1개 -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다국어) 개발 500백만원 × 1개 - 도시관광환경 및 안내체계 정비 3,000백만원 × 1개 	4,300
지역관광거점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600) : 150백만원 × 4개 ○ 도시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정비(8,000) : 2,000백만원 ×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드 구축 빅데이터 분석 250백만원 × 4개 -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다국어) 개발 250백만원 × 4개 - 도시관광환경 및 안내체계 정비 1,500백만원 × 4개 	8,600
관광거점도시 홍보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거점도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3,000백만원 × 1식 	3,000
계	-	15,9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5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아직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등 사업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선정된 지자체와 실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업기간 '19.6.~'20.1.) 중이며,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지난 7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연구용역에서는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며, 관광거점도시의

원회의 후보도시 선정 및 거점도시 최종 선정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1년 간 활동하면서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게 되는데, 10월에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12월에 신청접수 및 심사절차를 거쳐 2020년 1월에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계획이 관광거점도시 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계속 변경되고 있고,³⁾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경쟁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 및 선정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광거점도시 선정이 목표대로 2020년도 1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거점도시 연구용역 내용 및 관광거점도시 위원회 개요]

<p><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거점도시(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기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거점도시 개념,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정책대상 및 범위 설정 - 관광거점도시 세부추진과제별 예산 규모 및 산출근거 마련 ○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지침 마련 ○ 관광거점도시위원회 구성, 후보도시 선정 및 거점도시 최종 선정 지원 ○ 후보도시별 기본구상(안) 수립 및 공모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p><관광거점도시 위원회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관광, 건축디자인, 도시계획·재생, 스마트관광, 교통 등 7명 ○ 위촉기간: 2019.7.30.~2020.7.29.(1년 간) ○ 역할: 관광거점도시 선정, 사업방향 및 기본계획에 대한 제언 ○ 운영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0.) 제1차 회의 개최(위원 위촉, 연구용역 상황보고), (9월말, 10월초)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10월~12월) 신청 및 심사절차, (20.1.) 관광거점도시 선정(목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관광거점도시가 선정이 안된 상황이고, 내년에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실제 추진할 사업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점과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온 후에야 세부추진과제 및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

3)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9월 중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9월 말 관광거점도시 후보도시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후보도시를 선정하지 않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후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관광거점도시 위원회 회의에 따라 계획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편성한 159억원의 예산은 사업 첫해에 기본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사업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사업 내에서 기존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⁴⁾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매년 2~3개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콘텐츠·상품개발·컨설팅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2014년에 시작하여 2019년 종료되는 사업인데 반하여,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여 도시브랜드·컨설팅·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새로운 신규사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 사업⁵⁾은 사업 첫 해 예산이 159억원으로 5년 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⁶⁾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내년 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세부추진과제별 예산 규모가 마련된 이후에야 총사업비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 사업과 사업목적(지역관광지 육성), 사업수행방식(지자체·민간경상보조), 사업기간(5년)이 유사한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2017년도) 예

4) 동 사업은 2019년에 ‘관광전략거점도시 계획수립 및 컨설팅’ 명목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편성된 2억원도 현재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되는 등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동 사업은 한국관광공사(보조율 100%)와 지자체(보조율 50%)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5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산이 240억원으로 사업 4년차인 2020년까지 894억원이 투입되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첫해 예산은 159억원이나 컨설팅·홍보마케팅 등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관광거점도시 사업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사업목적	지역균형발전 및 외국인 관광객 방문 확대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규모	1개 광역시, 4개 기초지자체	10개 권역(39개 지자체)														
사업기간	2020~2024년(5년 간)	2017~2121년(5년 간)														
보조사업자	한국관광공사(100%) 지자체(50%)	한국관광공사(정액) 한국콘텐츠진흥원(정액) 지자체(50%)														
사업내용	도시브랜드·컨설팅·홍보마케팅	컨설팅·홍보마케팅 등														
총사업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예 산</th> </tr> </thead> <tbody> <tr> <td>'20년</td> <td>15,900</td> </tr> <tr> <td>'21년~'24년</td> <td>중기재정계획 미수립</td> </tr> </tbody> </table>		연도	예 산	'20년	15,900	'21년~'24년	중기재정계획 미수립								
	연도	예 산														
'20년	15,900															
'21년~'24년	중기재정계획 미수립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예 산</th> </tr> </thead> <tbody> <tr> <td>'17년</td> <td>24,000</td> </tr> <tr> <td>'18년</td> <td>24,001</td> </tr> <tr> <td>'19년</td> <td>29,300</td> </tr> <tr> <td>'20년</td> <td>12,100</td> </tr> <tr> <td>'21년</td> <td>미 정</td> </tr> <tr> <td>합계</td> <td>89,401</td> </tr> </tbody> </table>		연도	예 산	'17년	24,000	'18년	24,001	'19년	29,300	'20년	12,100	'21년	미 정	합계	89,401
연도	예 산															
'17년	24,000															
'18년	24,001															
'19년	29,300															
'20년	12,100															
'21년	미 정															
합계	89,4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첫해인 2020년도에만 159억원 수준으로, 5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5년 간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연구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와야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규모와 총사업비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간 총사업비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인 대규모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 첫해에는 선정된 지자체와 실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¹⁾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스마트관광 정보 제공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9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스마트관광 활성화	7,816	7,747	7,747	16,912	9,165	118.3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1,404	1,392	1,392	5,700	4,308	30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내년도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예산의 적정규모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 내의 내역사업인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었고, 내년에는 스마트관광도시²⁾ 시범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전년대비 43억 800만원이 증액된 57억원을 편성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19

2) 스마트 관광도시란 최신 ICT를 관광산업에 적용해 관광객이 편리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관광, 쇼핑, 숙박경험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편성내역]

-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 5,700백만원(신규)
 - 플랫폼 개발 : 2,900백만원(1식×2,900)
 - 지역 기반 조성 : 2,000백만원(1식×2,000)
 - 정책 수립 : 500백만원(1식×500)
 - 스마트관광 활성화 추진 : 300백만원(1식×3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전문가 자문회의, 2018년 진행한 스마트관광도시 사전연구 및 스마트관광 세미나 등을 바탕으로, 2019년 말에 스마트관광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자와 스마트관광도시 지자체를 공모하여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나 추진전략, 시범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³⁾ 현재 편성된 57억원의 사업비는 구체적인 계획수립 이전에 예산안 편성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실제 내년에 수행할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집행계획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동 사업은 내년에 시범조성을 거쳐 2021년 이후에는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예산의 적정규모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관광도시의 개념도나 구현 서비스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수준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¹⁾은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2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79,806	84,659	84,659	102,088	17,429	20.6
스포츠클럽디비전	3,176	3,834	3,834	10,832	6,998	182.5
축구클럽디비전	3,176	3,834	3,834	4,532	698	18.2
신규종목클럽디비전	0	0	0	6,300	6,3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분야 프로(엘리트)와 아마(생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디비전시스템²⁾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7년부터 축구 종목에 대하여 디비전 리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축구의 경우 2017년 7부, 2018년 6부, 2019년 5부리그가 출범하였고, 내년부터 5~7부리그 승강제가 전면시행 예정이며, 2026년 이후 1~7부리그 승강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도 축구 스포츠클럽디비전 도입 로드맵]

2017	2018	2019	2020~2022	2023~2025	2026~
7부(D7) 리그출범	6부(D6) 리그출범	5부(D5) 리그출범	5~7부리그 승강제 전면시행	3~5부 리그 승강제 시행	1~7부리그 승강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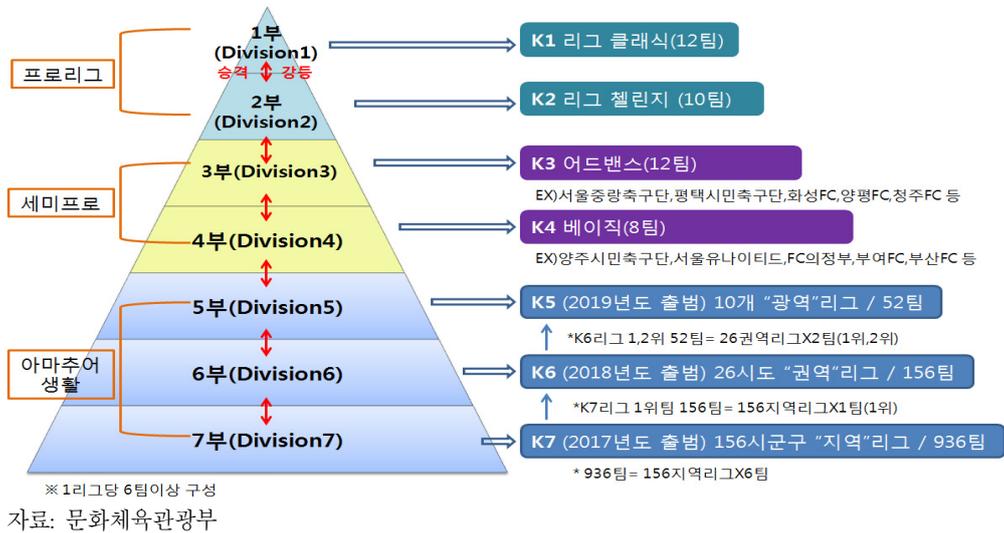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1

2) 디비전(Division) 시스템이란 상위 팀은 상부 리그로 승격하고, 하위 팀은 하부 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운영되는 보편적인 리그 운영 방식을 말한다.

[축구 스포츠클럽디비전(D1~D7)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20년도에 축구 종목에 추가하여 신규 3종목에 대한 디비전 리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63억원을 신규 편성³⁾하였다.

나. 분석의견

디비전리그의 타종목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신규 3종목은 공모(연내)를 통해 제반 운영 여건(운영의향, 리그장소, 시군구 조직 규모, 승강제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종목단체 대상 설명회를 '19.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디비전시스템을 타종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주체인 종목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리그운영 제반여건(시군구 조직, 시설 및 심판 확보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가 61개 정회원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디비전사업 희망 여부와 디비전시스템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실시('19.5.24~6.17)하였는데, 디비전사업 도입 희망은 10개 종목⁴⁾에 불과

3) 세부 예산편성내역: 63억원=2.5백만원×120시군구×3종목×7개월

4) 농구, 야구, 당구, 소프트테니스, 양궁, 자전거, 파크골프, 세팍타크로, 국학기공, 패러글라이딩

하였고, 디비전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기 종목(배드민턴, 탁구, 볼링, 배구, 테니스 등)은 디비전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디비전시스템 도입가능 종목으로 탁구, 야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종목에서 리그운영을 위한 시설이나 심판수가 부족하며, 참여의사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1차조사 이전에 해당 종목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조사 당시 해당종목이 제출한 결과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⁶⁾

[디비전시스템 도입관련 기초조사(일부종목 예시)]

구분	시군구 조직수	리그운영 시설확보	심판수	리그운영 시 심판투입 여부
탁구	확인필요	미흡	3,058명	미흡
야구	확인필요	미흡	26명	가능
농구	137시군구	미흡	4,000명	미흡
배구	191시군구	가능	730명	가능
배드민턴	229시군구	가능	2,025명	가능
볼링	217시군구	가능	확인필요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현재 종목단체 설명회와 2020년 신규 3종목에 대한 공모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이루어짐에 따라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디비전리그의 타종목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리그운영 제반여건에 대한 평가와 종목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5) “클럽디비전 시스템 타종목 확대 방안”, 생활·전문체육연계를 위한 클럽디비전시스템 구축 정책 토론회, 2019.6.27.
- 6)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1차조사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협의 등을 통해 디비전 시스템 도입가능 종목의 이해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10월 중 개최되는 종목단체 대상 설명회에는 40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특히 탁구, 테니스, 농구, 당구 등 일부 종목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황

태권도 진흥 사업¹⁾은 태권도 전문인력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등을 통해 태권도의 해외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7억 3,100만원이 증액된 18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태권도 진흥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태권도 진흥	14,386	15,000	15,000	18,731	3,731	24.8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3,650	3,650	3,650	6,218	2,568	7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기술 보급이 필요한 국가에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고 있는데, 2019년 9월 현재 38개국 39명이 파견 중이다.²⁾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현황(38개국 39명/19년 9월 기준)]

구분	파견국	
아시아	16개국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2명), 태국,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일본,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유럽	9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조지아, 아일랜드, 프랑스 *핀란드('19년 11월 파견 예정)
아프리카	6개국	튀니지, 케냐,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남아공* *남아공 → 핀란드('19년 11월 중 전입 예정)
아메리카	7개국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주: 2019년 신규 파견 예정(2개국/요르단, 벨기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3-300

2) 파견사범은 사업시행자인 국기원과 파견근무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기간은 최초 1년이고 평가를 거쳐 2년 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다.

2020년도에는 신규로 30명을 선발하여 태권도 사범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³⁾ 이에 따라 2020년도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예산은 전년대비 25억 6,800만원을 증액한 62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편성내역	20년 예산안
기존 해외파견 사범 (4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사범 기본급: 2,178천원×41명×12개월=1,072백만원 ○ 파견사범 수당: 3,370천원×41명×12개월=1,658백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가족수당, 주택임차료,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 파견사범 퇴직연금 적립금: 3,000천원×41명=123백만원 ○ 파견사범 해외안전보험 가입: 4,950천원×41명=203백만원 ○ 현지활동지원비 등 제반비용: 1,207천원×41명×12개월=594백만원 	3,650
신규 해외파견 사범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2,178천원(전년동)×30명×10개월=653백만원 ○ 수당: 3,370천원(전년동)×30명×10개월=1,011백만원 ○ 해외 안전보험 가입: 4,950천원(전년동)×30명=149백만원 ○ 신규 파견비용(여비 등): 13,100천원(전년동)×30명=393백만원 ○ 현지활동 지원비: 1,207천원(전년동)×30명×10개월=362백만원 	2,568
합 계	-	6,2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내년도 30명의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계획은 과거 실적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예산의 집행부진도 예상되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파견계획을 마련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파견사범의 모집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은 1명을 모집하였으나 선발하지 못했고, 2017년에는 세차례에 걸쳐 4명, 3명, 6명을 모집하였으나 각각 1명씩만 선발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2명을 모집하였다가 적격자가 없어 2명을 재공모할 예정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태권도 모국의 태권도 사범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파견 인원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파견사범 모집 및 선발 현황]

연 도	목표	선발	구분	모 집		지원	선 발
				국가	인원		
2016년	1명	1명	1차	파라과이	1명	10명	1명 선발
2017년	10명	3명	1차	불가리아	1명	4명	1명 선발
				체코	1명	3명	적격자 없음
				에스토니아	1명	5명	적격자 없음
				짐바브웨	1명	3명	적격자 없음
			2차	체코	1명	4명	1명 선발
				에스토니아	1명	7명	적격자 없음
				짐바브웨	1명	1명	적격자 없음
			3차	헝가리	1명	0명	지원자 없음
				아르메니아	1명	4명	적격자 없음
				우루과이	1명	2명	적격자 없음
				에콰도르	1명	1명	적격자 없음
브라질	1명	2명		1명 선발			
2018년	8명	6명	1차	몽골	1명	2명	적격자 없음
				우간다	1명	1명	1명 선발
				폴란드	1명	2명	1명 선발
				에스토니아	1명	7명	1명 선발
				우크라이나	1명	4명	1명 선발
			2차	아일랜드	1명	4명	1명 선발
2019년	2명	0명	1차	요르단	1명	5명	적격자 없음
				벨기에	1명	4명	적격자 없음
	2명	선발중	2차	요르단	1명	5명	10월 중 선발 예정
				벨기에	1명	7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2017년부터 우수한 사범을 선발하고 선발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학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미적격자가 많았으며,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학점수가 미달한 자에 대하여 단기 어학집중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후 통과기준에 도달한 자에 한해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4) 현재 파견사범 선발전형은 1차(서류전형)와 2차(면접, 외국어, 실기, 경력)로 나뉘는데, 2017년부터 2차전형에서 외국어와 실기의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연 도	경력	실기	면접	외국어	합 계
'16년도	20점	30점	25점	25점	100점
'17년도	10점	40점	10점	40점	100점

5) <외국어평가 배점 및 평가>

그러나, 그동안 태권도 파견사범의 모집인원 추이가 '16년 1명 → '17년 10명 → '18년 8명 → '19년 2명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미지원자 또는 미적격자가 많아 적은 수의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한 실적을 감안할 때, 예년보다 훨씬 많은 30명⁶⁾의 신규 사범을 모집하여 파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계획으로 보이며 갑자기 한해에 많은 인원을 모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먼저, 그동안 1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1~4명이 지원한 경우가 많아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집인원 대폭 증가 시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선발인원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파견사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파견국 군대·경찰·학교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지도를 통한 파견국 지도층 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파견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아직 파견국가가 결정되지 않는 곳이나 인기 국가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비인기 국가에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수만 지원하면서 지원자 또는 적격자 없음으로 미선발되는 국가가 많을 수 있다.

한편, 2020년도 신규파견 계획을 보면 '20년 1월에 선발공고, 1월 말 선발심사, 2월 계약 및 교육을 거쳐 3월에 파견 계획이고, 이를 감안하여 신규파견 사범 인건비를 10개월(3월~12월)로 산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과 올해의 경우에도 1차 모집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내년도에는 30명을 일시에 모집함에 따라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2차, 3차에 걸쳐 재공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산의 적기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30명의 신규 사범을 파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계획으로 보이고, 예산의 집행부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수준의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계획을 마련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배점 40점(총 100점 중): 번역 5점, 작문 5점, 회화 30점
 - 파견국가 사용언어 가능자 우대(가산점 3점 부여) * 벨기에: 불어 우대, 요르단: 아랍어 우대
- 평가: 한국외대 통번역센터에서 추천한 평가위원

- 6) 30명은 현재 파견 중인 전체 파견사범 41명의 73.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7) 문화체육관광부는 '19년 10월~11월에 파견후보국가를 선정하고, '19년 12월에 파견후보국가 현지 실사를 통해 파견국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17년~'18년 파견사범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럽 7개국, 아시아 14개국, 아메리카 6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아프리카 14개국(총 42개국)에서 태권도 사범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가. 현황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¹⁾은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신설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는 신규로 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0	0	0	2,905	2,905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2019.2.7.)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해왔는바, 혁신위원회는 1차 권고(2019.5.7.)에서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국회에서는 체육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지난 2019년 7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주요내용]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 (안 제18조의3 신설)
 -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연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담당
- ※ 부칙: 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법 시행 전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21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근거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법률안 심의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스포츠윤리센터 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가 1년치로 산정되어 편성되어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20년 예산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722.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장 80백만원, 부장 120백만원(60백만원×2명) - 기타 직원 420백만원(35백만원×12명) / 정액수당 등 102.9백만원 ○ 임차 보증금 550백만원, 사무환경 구축 등 376백만원 ○ 운영비 506백만원 	2,155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계 비리 조사 사업 : 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150백만원, 법률자문 10백만원×10건=100백만원, 소송관련 비용 50백만원 등 ○ 피해자 지원 사업 : 2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 80백만원, 스포츠 인권침해 상담전화(Helpline) 운영,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170백만원 ○ 공정교육 및 홍보 사업 : 2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인권실태조사 70백만원 - 체육단체·선수·지도자 등 대상 윤리 교육 실시 100백만원 - 스포츠 공정성 확보 관련 홍보활동 30백만원 	750
계	-	2,9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18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안 심의 시 법률안 심의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법 시행 전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 예산안 조정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40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과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사업 통합 운영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44
3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사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47
4	문화체육관광부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52



문화재청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은 2,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14억원(18.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29억원, 문화재보호기금 1,511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7,073	41,859	41,859	52,952	11,093	26.5
- 일반회계	47,073	41,859	41,859	52,952	11,093	26.5
기 금	128,635	130,770	130,770	151,076	20,306	15.5
- 문화재보호기금	128,635	130,770	130,770	151,076	20,306	15.5
합 계	175,708	172,629	172,629	204,028	31,399	18.2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은 1조 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8억원(18.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9,196억원, 문화재보호기금 1,440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73,418	782,050	782,050	919,639	137,589	17.6
- 일반회계	646,221	757,503	757,503	919,639	162,136	21.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197	24,547	24,547	-	△24,547	순감
기 금	105,939	118,705	118,705	143,972	25,267	21.3
- 문화재보호기금	105,939	118,705	118,705	143,972	25,267	21.3
합 계	779,356	900,755	900,755	1,063,611	162,856	18.1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52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0억원 (26.5%) 증가하였다.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7,073	41,859	41,859	52,952	11,093	26.5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9,19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75억원 (17.6%) 증가하였다.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46,221	757,503	757,503	919,639	162,136	21.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197	24,547	24,547	0	△24,547	순감
합 계	673,418	782,050	782,050	919,639	137,589	17.6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다.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재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10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03억원(15.5%) 증가하였다.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재보호기금	127,501	130,770	130,770	151,076	20,306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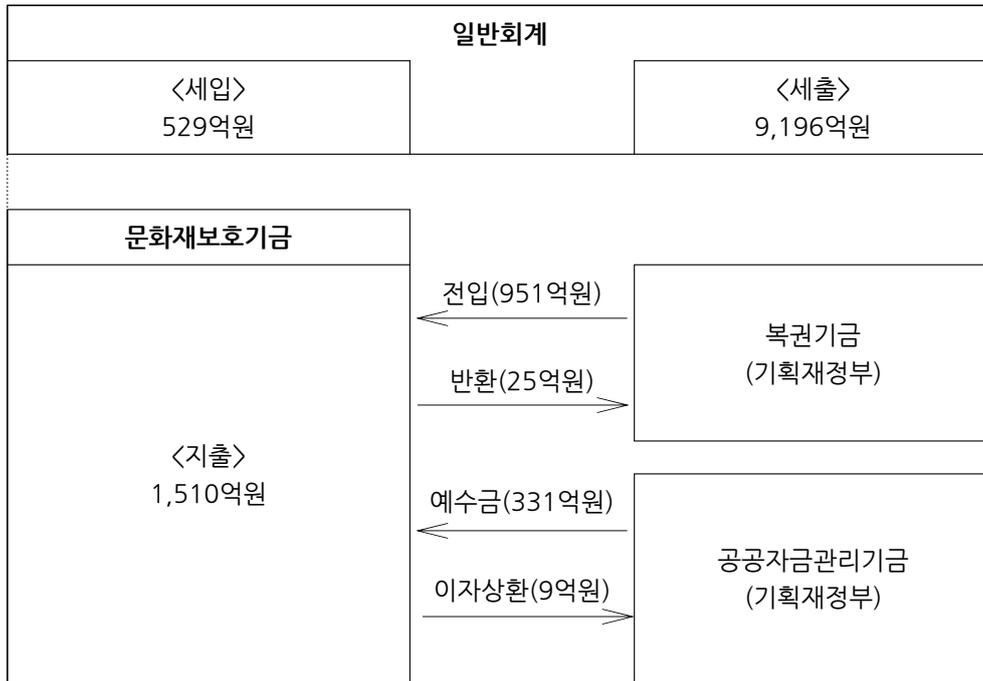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기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31억원을 예수하고, 9억원의 이자를 상환한다. 또한 복권기금으로부터 951억원을 전입받고, 25억원을 진출한다.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문화재 정책연구 확대 등 정책기반 강화(2019년 531억원 → 2020년 767억원), ②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2019년 3,997억원 → 2020년 4,468억원), ③ 문화재 활용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2019년 565억원 → 2020년 891억원), ④ 궁능 개방 등 궁능원 관리 및 적극 활용(2019년 784억원 → 2020년 1,140억원), ⑤ 남북간 문화재 교류와 국제개발협력 등 문화재 교류협력 활성화(2019년 709억원 → 2020년 852억원)를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다.

2020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추진 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관 간(행안부, 서울시) 이견 및 교통 체증·시위 증가를 염려한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행안부의 우회도로 개설 협의 과정 및 인근 주민·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국 전수교육관(150개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사업은 전수교육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 결과 배치를 희망(77개관)하는 교육관이 적고, 채용공고에서 선발·배치까지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하므로 연내에 목표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재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162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사업은 가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및 가야역사문화자원 수집·관리를 통해 가야사에 대한 온전한 실체 규명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은 궁능유적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의 계속사업인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의 내역사업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의 형태는 신규사업이나 사업의 내용은 계속사업이다.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1,180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15,017
합 계		16,197

자료: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국립고궁박물관운영, 궁능문화재관리운영 등이 있다.

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신청 현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등 문화재 정책개발에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은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에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④ 국립고궁박물관운영 사업은 인천공항 내 문화유산 미디어 윌 설치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⑤ 궁능문화재관리운영 사업은 4대궁종묘 등 고건물 보수 개선 및 사직단 원지형 정비 공사(3차) 등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문화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5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	360,060	360,060	400,000	39,940	11.1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807	807	8,383	7,576	938.8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2,515	2,515	17,152	14,637	582.0
	국립고궁박물관운영	10,465	10,465	20,841	10,376	99.1
	궁능문화재관리운영	18,404	18,404	26,498	8,094	44.0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문화재청

II

개별 사업 분석

1

광화문월대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황

경북궁종합정비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광화문 월대²⁾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서울시의 광화문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월대 복원공사 및 도로(사직·율곡로) 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106억 5,000만원이 편성(지자체보조, 보조율 50%)되었다.

[2020년도 경북궁종합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북궁종합정비 사업	5,282	15,951	15,951	14,108	△1,843	△11.6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77	13,336	13,336	10,650	△2,686	△20.1

자료 : 문화재청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을 보면, 역사광장 조성 및 도로개설 공사비 97억 8,900만원, 광장 및 도로 감리비 등 8억 6,100만원이 반영되었다.³⁾

동 사업은 경북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역사광장)과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으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 복원을, 서울시는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231-301

2) 월대는 경북궁의 정전인 근정전, 종묘 정전, 조선왕릉 정자각에서 볼 수 있는 넓은 대를 뜻하는 것으로, 광화문 월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임금과 백성이 만나 소통하는 장소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3)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총사업비 현황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역사광장 조성 등 국제설계공모를 공고(2018.10.)하여 당선작을 선정(2019. 1.)하였으며 현재 역사광장 및 도로이설(우회도로 개설) 등이 포함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문화재청은 2019년 실시한 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역사광장 조성 및 도로이설(우회도로 개설) 등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관 간(행안부, 서울시) 이견 및 교통 체증·시위 증가를 염려한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행안부의 우회도로 개설 협의 과정 및 인근 주민·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9월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역사광장 조성 및 도로개설 등 설계비 8억 9,600만원 및 건물·토지보상비로 편성된 124억 4,000만원 등으로 반영된 총 133억 3,600만원의 예산 중 설계비, 건물·토지보상비 선급금 등으로 20억 1,900만원(13.0%)만 집행하였다.

[2019년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집행 현황]

(2019.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국비)	집행금액	집행률	집행내역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13,336	2,019	13.0	설계비, 건물·토지보상비 선급금

자료 : 문화재청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총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74,200	80	26,671	21,300	16,200	4,949	5,000
국 비	37,100	80	13,336	10,650	3,085	4,949	5,000
지방비 (서울시)	37,100		13,335	10,650	13,11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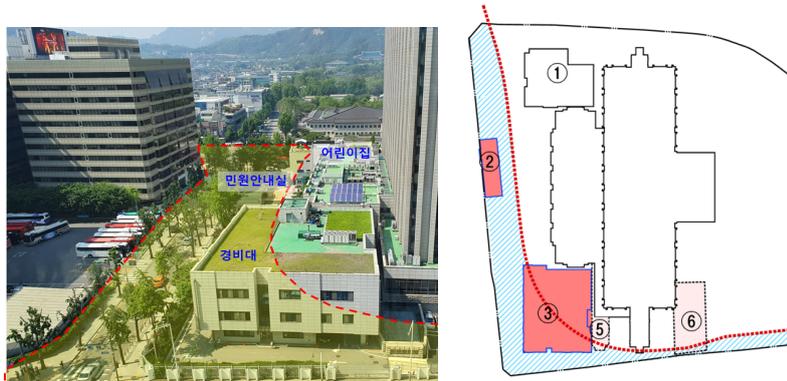
자료 : 문화재청

2019년 집행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월대 복원을 위해서는 기존 10차로인 사직·울곡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현 2차로의 도로를 6차로로 확대하는 우회도로 개설 시 기존의 정부청사(행정안전부) 토지·건물과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⁴⁾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저촉부지에 상응하는 시유지교환(세종로 공원, 신문로 주차장), 어린이집 신설, 저촉건물 이전 설치 요구 등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견 조정 중에 있다.⁵⁾

더욱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 혼잡,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인해 집회 시위 증가 등을 우려한 주민 불만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⁶⁾ 이러한 논란 속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2019.09.19.).⁷⁾

4) 월대복원을 위한 우회도로 계획으로 정부청사 토지·건물(②민원안내실, ③경비대, ⑤조경사무실 등 부속건물 3개동)이 우회 도로와 저촉된다.



5) 행안부 시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 협조공문(2019.7.30.)

- ① 서울청사 입주기관에서 서울청사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훼손 우려 지적
- ②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관련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요구
- ③ 문화재청과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업의 전반적인 일정 조정
- ④ 월대 우회도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 얻는 과정 선행 후 착수

6) 경실련 등 10개 단체는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동 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2019.08.29.).

7) 서울시는 최근 광장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부족 및 소통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주의 논의체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광화문광장 관련 추가적인 숙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광화문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이 재개되면 2020년도에 편성된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의 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안부와 우회도로 개설관련 협의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기에 실제 사업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 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청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관 간(행안부, 서울시) 이견, 시민단체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동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의 우회도로 개설 협의 과정, 서울시 사업재개 여부 및 시민단체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 프로세스를 2019년 말까지 진행하고,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협력적 추진체계를 통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19.09.19).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문화재보수정비 사업¹⁾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전국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방지,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전시관 유지보수 30%)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400억원 증액된 4,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295,060	360,060	360,060	400,000	39,940	11.1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는 연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추진되고 있다.²⁾³⁾ 이에 따라 국회는 총액규모만을 심사하고 세부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이 협의를 거쳐 확정·추진하고 있다.⁴⁾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134-701

2)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 동 사업의 운용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11월까지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 당

나. 분석의견

고도(공주, 경주, 부여, 익산) 지역 문화재 정비사업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이 명확하므로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매년 지자체로부터의 신청 건수가 2,000여건이고 내역 사업 건수는 1,500여건에 이르는 소액 다건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보수 범위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사업건수의 과다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세부내역을 확정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세부내역 편성(안)을 보면 총액계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4개 고도(공주, 경주, 부여, 익산)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보존지구’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 고도 지역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전체	고도 지역 사업 현황				
		계	공주	경주	부여	익산
사업건수	1,304	110	10	73	17	10
사업비	400,000	43,033	909	27,895	9,744	4,485

또한, 공주·부여·익산 지역 26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백제왕도핵심유적 정비사업’은 ‘백제왕도핵심유적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총액계상사업 지정요건인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해 연도 1월중 세부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관계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한인 전년도 5월말까지는 세부내용 확정이 어려운 관계로 내역없이 총액으로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심의 후 기획재정부와 세부시행계획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확정·추진하고 있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부사업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당해연도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전년도 세부사업 집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대상별 소관 문화재 수량]

(단위: 건)

구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계	세부사업명(예산코드)
고도 지역 ¹⁾	180	34	41	28	283	총액계상(2134-701)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3331-304)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3331-305)
경주역사유적지구	42	-	-	-	42	총액계상(2134-701)
백제왕도핵심유적	-	6	14	6	26	총액계상(2134-701)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3331-305)

주: 1) 고도 지역 문화재 수량은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왕도핵심유적의 문화재 수량이 모두 포함
자료: 문화재청

한편, ‘경주역사유적지구’ 관련 사업은 2016년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된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과 같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대상이 명확하여 세부내용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되어(30건, 147억) 있다.

특히 경주역사유적지구(총액계상) 사업 중 대통령 고분정보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재 보수의 범위와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어렵거나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0년도 ‘경주역사유적지구’ 사업 중 총액계상으로 부적절한 편성내역(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편성내역	편성비중
전체(30건)	14,700	경주역사유적지구 역사지구 문화재 보수정비 30건	100.0
1건	3,500	금관총 보존시설 및 대통령 고분정보센터 건립	23.8

자료: 문화재청

따라서 세계유산인 ‘경주역사유적지구’ 정비사업, ‘백제왕도핵심유적사업’ 및 4개 고도 지역 문화재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내용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사업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여 일반 예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경주역사유적지구”는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유적지구 내 국가지정문화재 39건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6)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유적지구 내 국가지정문화재 14건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은 2017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으로 분리되었다.

가. 현황

문화재돌봄사업¹⁾은 국가지정, 시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상시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절감하고, 문화재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돌봄지원사업은 돌봄사업단(전국 17개 시도, 23개 사업단) 인력 교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돌봄사업 성과교류, 정책과제연구 등을 통해 문화재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7억원(민간경상보조)이 반영되었다.

[2020년도 문화재돌봄 사업 예산안 현황 : 돌봄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재 돌봄사업	12,179	13,535	13,535	14,703	1,168	8.6
돌봄지원사업	1,700	1,700	1,700	1,700	0	0

자료 : 문화재청

돌봄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돌봄사업단 현장 실습 등 전문교육 6억원, 문화재돌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 돌봄사업 성과교류 및 정책연구지원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돌봄지원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돌봄지원사업 : 17억원(전년 동)
 - 돌봄사업단 현장 실습 등 전문교육 : 6억원
 - 문화재돌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4억원
 - 돌봄사업 성과교류 및 정책연구지원 : 7억원

자료: 문화재청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2133-301

나. 분석의견

문화재돌봄지원 관련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세부 정책 과제별로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수행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분야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업분야를 ① 성과관리 및 협업체계 구축, ② 돌봄인력 교육, ③ 정책홍보 및 성과교류, ④ 정책과제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공고하였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 내역과 상이하고, 과업 분야별 자격요건, 수탁 금액 구분 없이 통합 발주함으로써 1개의 단체가 관련 분야 과업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내용]

예산 편성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공고(총 1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지원사업 : 17억원 - 돌봄사업단 현장 실습 등 전문 교육: 6억원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 - 돌봄사업 성과교류 및 정책연구 지원: 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과관리 및 협업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② 전문교육 수행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인력 대상 권역별 교육 실시 및 관리 등 ③ 정책홍보 및 성과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사업 홍보물 발간 등 정책 홍보 등 ④ 정책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사업 유형분야별 고도화 방안 모색 연구 등 - 이 외 돌봄사업에 적용 가능한 조사·연구 등

자료: 문화재청

실제 예산집행 또한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총액 17억원 내에서 과제별로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통합 발주 방식의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매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으로 동일하며, 동 기관은 2017년 9건, 2018년 7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방안연구’, ‘비지정 문화재 돌봄 관리방안 연구’ 등 총 6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²⁾

[문화재돌봄지원 사업자 선정기관 및 수탁과제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선정기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수탁과제	9건	7건	6건

자료: 문화재청

특히, 동 사업 정책연구용역 과제 발주 공고문을 살펴보면 선정된 연구기관이 수행할 정책연구과제의 대략적인 주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과제별 제안서와 과제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돌봄사업에 적용 가능한 조사·연구와 같이 정책과제의 구체성이 결여된 채 선정기관에 일임한 과제가 있다.’³⁾

연구용역 발주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1개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발주하는 현행 방식은 세부 주제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하더라도 돌봄 교육, 시스템구축, 정책과제 연구 등 돌봄사업 전체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전문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재돌봄사업 정책연구지원 사업 추진 시 세부주제별 타 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한 과제별 분리 발주를 검토하여 정책연구과제의 경쟁력, 객관성, 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2019년 문화재돌봄지원 연구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금액
2019년 (6.2억원)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100
	문화재 돌봄사업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80
	문화재 돌봄사업 현장업무 매뉴얼 개발	150
	문화재 돌봄교육 기반 및 체계화 연구	120
	비지정문화재 돌봄 관리방안 연구	90
	돌봄인력 임금체계 및 고용안정 연구	80

자료: 문화재청

3)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체 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먼저 선정되면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연구용역의 과제 수 및 내용, 연구 용역과제별 금액 등을 선정된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의 내용을 보면 경미한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사업의 성격에 비해 그 주제가 너무 세부적이고 과제수가 일정부분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가. 현황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Media Wall 무빙워크) 사업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첨단 미디어 기술로 시연하여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²⁾

동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총 9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11,220	10,465	10,465	20,841	10,376	99.1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	0	0	0	9,500	9,500	순증

자료: 문화재청

동 사업은 한국문화재단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되며, 무빙워크 양방향에 국내 작가가 제작한 총 12편의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세부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미디어월 설치 46억원, 콘텐츠 제작 15억원(총 12편), 전시물 설치 34억원 등이 편성되어있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3433-301

2) 문화재청은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입국장 권역 내 전통요소 및 한국문화 홍보 수단이 전무하다는 인식하에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게이트에서부터 입국심사대 구역(무빙워크 공간)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인천공항 미디어월(컴플렉스) 설치 : ('20년) 95억원 ■ 미디어월 설치(2단/4구간/총 584개) 46억원 ■ 콘텐츠 제작(총 12편) 15억원 ■ 전시물 설치(해시계, 자기 등/엔들러 2구간) 28억원 ■ 실시설계(2.5억원), 감리(0.8억원), 운영비(2.7억원) 등 6억원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미디어월에 전시되는 작품을 12편 모두 신규로 제작하기보다는 기존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콘텐츠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 사업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문화유산과 첨단 시각예술이 결합된 한국 고유의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화재청이 현재까지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으로 제작된 기존 다수 콘텐츠·영상물이 전국 초등학교나 박물관 등에 보급되는 것 외에 적절한 활용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전반적인 활용도가 낮다.

[기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현황]

구분	콘텐츠	제작편수
실감형 콘텐츠	석굴암, 승무, 팔만대장경, 용릉·건릉, 수원 화성 등	19편
국민서비스용 디지털 콘텐츠	국보, 보물, 사적·명승,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등	249편

자료: 문화재청

2019년 현재 제작된 콘텐츠를 보면 문화재청은 실감형 콘텐츠 19편, 국보·보물·무형문화재 등 249편을 제작하였으나 이를 전시할 공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³⁾ 이에 대해 현재 문화재청은 디지털 문화유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3) 문화재청은 2019년 12월말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에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을 조성하여 2020년부터 관련 콘텐츠를 전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재청은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에 전시할 작품을 모두 새롭게 창작하여 전시하기 보다는 기존 문화유산 영상 자료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상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기존 콘텐츠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¹⁾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2015년)된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9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기본골격을 회복, 민족문화 부흥과 문화융성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17년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되었으며, 2020년 예산안에는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신청액(566억원)의 약 55% 수준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억 4,900만원이 증액(32.8%)된 3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21,351	23,351	23,351	31,000	7,649	32.8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 할 필요가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공주·부여·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3331-305

동 사업의 실적행 현황을 보면 매년 70% 이하로 집행이 부진하며 2019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실적행률이 15.3%으로 전년 대비 집행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7	21,501	21,501	21,501	21,501	12,260	9,236	5	57.0
2018	21,351	21,351	21,351	21,351	14,536	6,760	55	68.1
2019. 8월	23,351	23,351	23,351	23,351	3,573	0	0	15.3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고증 및 학술연구의 경우 과업기간이 길어 연내 집행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의 특성상 집행 부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동 사업이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되어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대상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만큼 집행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은 집행률 개선을 위해 ① 토지매입의 경우, 토지매입 소유자 동의서가 구비된 사업 우선 반영, ② 사업규모가 큰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비를 제외한 정비계획 수립비 또는 설계비만을 우선 반영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 ③ 연차사업의 경우 실적행률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패널티 부여) 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이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률 부진으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공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사업¹⁾은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등 유적기관의 관람시설을 개선하고 관람서비스를 향상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²⁾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정운용 과정에서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그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공능의 개방확대에 따른 해설사, 매수표원, 시설청소원 등 관람지원인력 증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억 4,400만원 증액된 12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관람지원 운영비는 92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비는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공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능유적관리수입 대체경비	9,881	10,678	10,678	12,022	1,344	12.6

자료: 문화재청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232-651

2)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공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관련 입장료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2020년도 수입대체경비 예산안에 공능의 개방확대에 따른 해설사, 매수표원, 시설청소원 등 관람지원인력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4,400만원 증액된 12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인건비 편성관련 증액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예산안	19년 대비 증감
운영인원	255	269	283	14
예산	7,621	8,104	9,262	1,158

자료: 문화재청

수입대체경비에 대응하는 문화재청의 수입은 공능·유적관리소 문화재 관람료이고, 2020년도에는 154억 6,800만원이 세외수입인 입장료수입으로 편성되었다.³⁾ 그런데 동 세입의 최근 4년간 예산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17년도 예산 대비 수납률은 63.9%, 2018년도는 66.4%으로 저조하다.

[최근 3년간 입장료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15,017	15,017	0	15,017	14,784	14,784	98.4	100.0	0	0
'17	15,468	15,468	0	15,468	9,883	9,883	63.9	100.0	0	0
'18	15,468	15,468	0	15,468	10,277	10,277	66.4	100.0	0	0

자료: 문화재청

반면에 문화재청 입장료 관련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전전년도 관람료 수입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데 최근 편성률을 보면 2016년 51.64%에서 2019년 97.3%로 급

3) 관람료 징수 금액의 90%는 일반회계의 세입, 10%는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이 된다.

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 예산안은 전전년도 입장료 수입의 105.4%로 편성하여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예산편성이 되었다.

[최근 4년간 관람료 수입대비 수입대체경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입장료 수입 예산 및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전전년도 관람료 수입(A)	수입대체경비 예산액(B)	편성률(B/A)
2016	15,017	14,784	16,681('14년)	8,614	51.6
2017	15,468	9,883	13,376('15년)	9,439	70.6
2018	15,468	10,277	16,432('16년)	10,507	64.0
2019	15,468	0	10,976('17년)	10,678	97.3
2020 (안)	15,468	0	11,407('18년)	12,022	105.4

자료: 문화재청

동 사업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국고금관리법」 제8조4)에 따라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경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입장료 수입 결산에 근거하여 2020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데,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0억 2,200만원은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인 102억 7,7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모로 보기 어렵다.⁵⁾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관람객 유치에 위한 공능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각 및 비공개 지역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실감형 콘텐츠(AR·VR)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람객을 확대 유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관람객 수입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2017년 대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15%(201만명) 증가할 때 공능 관람인원은 1.9%(4만명)만 증가하였다는 문화재청 제출 자료를 감안하면 관람객 유치로 인한 수입 증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국고금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5) 문화재청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0억 2,200만원은 최근 3년간 입장료 수입(129억원)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한다.

[공·능 관람인원 추이]

(단위: 천명,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방문 관광객		13,232	17,242	13,336	15,347	8,439
공·능 관람인원	내국인	9,126	9,199	9,819	9,240	5,775
	외국인	2,407	3,846	2,084	2,123	1,395
	합계	11,533	13,044	11,902	11,363	7,170
	증감율	△5.7	13.1	△8.8	△4.5	

자료: 문화재청, 2019년 8월말 기준

따라서 문화재청은 공능 관람객 수 및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람객 유치 및 홍보 대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함과 동시에 무인발급기 설치, 무인 교통카드 결제방식 적용 확대 등 매수표원 증원에 따른 향후 운영비 증가 요인을 억제하는 대책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수입 확보 방안 및 비용 확대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보호 사업¹⁾의 신규 내내역 사업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²⁾에 근거하여 전수교육관의 공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전담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국 150여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보조율 40~50%)으로 2020년 예산안은 1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무형문화재보호 사업 예산안 현황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무형문화재보호	17,625	15,7788	15,778	21,536	5,578	36.5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6,930	4,600	4,600	9,714	5,114	111.1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0	0	0	1,824	1,824	순증

자료: 문화재청

동 사업의 자격대상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제한하며, 2019년 8월말 현재 이수자는 6,667명이고 이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1,271명이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132-301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들 중 전국 150개소 전수교육관에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인건비(12개월)를 책정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020년도 예산안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인건비(지자체) : 150개소×1명×250만원×12개월×40%(지자체경상보조 = 1,794백만원 - 인건비(문화재청 소유) : 1명×250만원×12개월(민간위탁) = 30백만원	1,824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전수교육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 결과 및 채용공고에서 선발·배치까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문화재청은 2019년 4월 전국 150여개의 전수교육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77개소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9. 4.	지자체 문화예술교육사 1차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추경 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 미 반영 · 수요조사 결과: 150개소 실시 77개소 희망(77명)
2019. 9.	지자체 문화예술교육사 2차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개소 희망(77명): 1차 수요조사와 변동 없음 · 지자체 설명회 실시(9.19)
2019. 10.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업 설명 실시	· 지자체 추가 신청 접수
2019. 12.	지자체별 채용 절차 추진	-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1차 수요조사 결과가 사전홍보가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여 2차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2019.9.)하고 지자체별 채용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현재 2차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수요조사 결과(77개소)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재청이 전국 150개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18억 2,400만원은 지자체의 참여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화재청 및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다하더라도 지자체별로 2020년 1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채용과정에 필요한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일련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 1~3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가 모집 과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어 근무하는 기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사전 수요조사(1차·2차) 시 단지 77개소에서만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내년도 150명을 12개월 동안 운용한다는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예술교육사 희망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채용 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사업은 문화재수리기술진흥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민간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특대재, 자연곡재 등의 고품질 수리용 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수리재료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동 센터는 총사업비 338억 9,000만원(국비 326억 9,000만원, 지방비 12억원)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수리재료보관시설, 목재건조·시험실로 구성 되어 있다.

2020년 예산안에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재수리기술진흥 사업 예산안 현황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681	1,249	1,249	2,327	1,078	86.3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0	200	200	800	600	300.0

자료 :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현재 군관리계획변경, 부지매입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사업부지 및 기능 축소에 따라 총사업비가 조정되었다.

이영주 예산분석관(shinpung00@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132-303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등 변경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부지	426,819㎡	210,000㎡	특별한 시설관리계획이 없는 녹지·조경 조성지 제외
센터기능	전시·체험시설 (800㎡)	제외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전시·체험시설 제외
총사업비	395억 3,000만원	338억 9,000만원	부지면적, 연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향후 총 사업비는 기본설계('19~'20년)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 결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 우선 실시설계비 8억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 사업 건립예정 부지의 약 30%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변경²⁾을 수반한 군관리계획변경 인가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데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또한, 향후 군관리계획변경이 완료됐다하더라도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립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토지보상비 협의 등이 지연되고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현재 군관리계획변경, 부지매입 등의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2) 동 사업부지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이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집 필

총괄 |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춘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권순진 예산분석관
이영주 예산분석관

지원 | 이지은 행정실무원
김승미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19-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